

러부리 후렌즈, 케냐 가다.

홍선주 지음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는
서른 중반 노마드 여자신간들의 케냐 여행기

러부리 후렌즈, 케냐 가다.

출간일 2012년 12월 25일

지은이 홍선주

E-mail lovandy@naver.com

lovandy.tistory.com



2012년,

추석 3일 전,

영화 <테이큰2>가 개봉하고

<WOW-판다리아의 안개>가 오픈 베타에 들어가는 9월 27일,

'러부리 후렌즈'는 케냐로 향했다.

목 차

캐스팅	1
프롤로그 1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4
프롤로그 2 자유여행? 패키지? 에어텔?.....	6
프롤로그 3 여행 전 준비해야 할 것들	9
여행 1,2일차(9/27~28)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14
여행 3일차(9/29) 천국 같았던 크레센트 섬의 보트사파리.....	48
여행 4일차(9/30) 추석. '레오파드야, 넌 어디 있는 거니?!'	74
여행 5일차(10/1) 드디어 캠프 사이트! 근데 이게 텐트 맞아?!.....	96
여행 6일차(10/2) '오기다리 고기다리 던' 별론 투어!	116
여행 7일차(10/3) 기린이 내 손가락을 물었어!	149
여행 7일차(10/4) 우리의 일정은 정말 크레센도로 잘 짜졌어!.....	168
여행 8일차이자 돌아오는 날(10/5)	190
에필로그 1	197
에필로그 2 - 달뻗의 한 페이지	198
Never ending story	200

캐스팅

러부리 후렌즈가 함께 여행했던 나라,
중국(2004), 그리고 케냐(2012).



쥬

The greater fool을 꿈꾸는 현실주의적 몽상가이자,
아직도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피터팬 콤플렉스의 소유자.
때문에 많은 시간을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모른다(아나?).
여행을 좋아하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주 여행을 가는진 알 수 없다.

여행한 나라들: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미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대만,
유럽(영국, 프랑스, 체코,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모
나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이번에 케냐.

워니

여행이 생활인 이방인이 되고 싶지만,
이방인의 여행생활을 만들다 지칠까 두려운 인간.



여행한 나라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이번엔 케냐

달빛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시의 감정에 한없이 충실한, 진단받지 않은 조울증 환자.

한 때는 자신이 모험 가득한 여행을 즐긴다는 착각 속에 살았으나, 무기력증과 엄청난 귀차니즘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인간.

여행을 가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도피, 러부리들과의 추억 공유, 이 두 가지.

여행한 나라들: 중국(여행보다는 거주 개념이 크지만.....), 태국, 대만(여행이라기 보다는 출장_주와 워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여행경험). 그리고 이번엔 케냐.

프롤로그 1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 아프리카 여행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2년 첫 날이었다.

12월 31일에 연말 모임 차 만나서, 너무 졸려서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셜록홈즈2>를 극장에서 감상한 후(이건 전적으로 우리 컨디션에 의한 것), 2011년의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고 다음 날엔 간단히 등산을 하기 위해 달뻗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의욕 충만하게 다가오는 설에는 인도여행을 함께 가자며 달뻗의 노트북으로 여행사들을 둘러보고 있다가, 워니가 아프리카 여행 상품을 보며 그것도 끌린다고 말했다. (진짜 '불타는 밤'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 날도 달뻗이 어디선가 얻은 도미노피자 쿠폰의 은총으로 피자만 먹고 바로 집에 모여서 앉아 이려고 있었으니까. - 달뻗의 집엔 TV도 없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설 여행은 인도를 1순위로 정해두었었기 때문에 (대학시절 여자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방학 때 인도를 다녀온 뒤로 그곳의 매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돈을 모아 다시 들어갔다. 그 모습에 우린 호기심이 발동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15년이 훌쩍 지나버린 것이다.) 인도를 놓지 않았고, 어느 정도 여행 상품을 확인하고는 서로의 일정 상에서 무리가 없게 몇 주 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확정해야 할 시기에, 달뻗은 개인 사정으로 불가를 선언했고, 10여 년을 기다렸던 인도 여행은 그냥 그렇게 파투가 나버렸다.

그리고 몇 달 후, 올해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워니가 여름에 가자며 다시 제안을 했고, 우린 다시 고민 끝에 그동안엔 감히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아 프 리 카



로 가기로 결심했다.

프롤로그 2

자유여행? 패키지? 에어텔?

여행 방식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귀차니즘에 찌들대로 찌든 30대 중반의 여인네들에게 한창 바쁘게 회사생활을 해내면서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었고, 정보를 알아볼 시간도, 다른 일에 비해 관여도도 낮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워니와 내가 그나마 달뻗보다는 인터넷에 접근이 용이 하다 보니 둘이 중점적으로 알아보긴 했지만(사실 워니가 거의. 난 겨우 '검색'만 했을 뿐, 정보를 필터링 해내진 못한 채 친구들에게 던졌다), 3명의 의견을 카톡으로 조율하고 맞추는 것은 상당한 내공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열심히 찾은 정보를 깊은 고민 없이 피드백 하는 것만큼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

결국 3명이 얼굴을 맞대고 즉석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진행 세부사항들을 결정하기로 방식을 변경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1시간도 채 안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우린 처음부터 현지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조직화할 생각은 모두들 없었던 것 같다. 현지 여행사만 괜찮은 곳을 찾으면 그쪽과 모든 걸

협의하면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케냐에서 자유여행 방식으로 여행을 준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은 와중에, 다른 발전된 나라들보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여행자는 더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여행자들의 여행수기를 보면, 자유여행만이 여행의 참 의미인 것처럼 써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불확실성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며, 타지에서의 그러한 경험은 인생 그 자체의 축소판일 수 있고, 현지인들과 더 많이 어울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자, 과년한 처자들끼리만 여행을 다니는 경우에 완전한 자유여행은 쉽게 선택하기 힘든 옵션이다. 물론 대부분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돌아오는 것 같다. 하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자유여행이 아니더라도 '여행' 자체가 가져다 주는 기본적인 인생수업은, 그 방식이 어떻든 각자가 취하고자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비록 조금은 비겁하고 값비싼 방식을 선택했을지라도, 오랜 친구들과 함께 현재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같은 수업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다고 우린 생각했다.

여행을 떠나는 게 조금은 두렵다면, 패키지도 좋다. 당신이 즐길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심신이 두려운 자유여행보다 누군가가 챙겨주는 안전한 여행이 더 옳은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땐 패키지가 서로에게 편하다.)

우린 다행히 비행기표를 엄청나게 싼 것을 찾게 되어서(이게 처음엔 너무 의심스러워서, 다른 여행사에 그 여행사의 비행기표 예매가 믿을 만한 거냐고 따로 확인해보기까지 했다;) 비용이 처음의 우려보다 많이 절약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행사를 통한 기본 비용을 고려했을 때, 모든 준비와 현지 여행 경비로 1인당 400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비행기 170~250만 + 여행사 150~200만 + 여행경비/옵션 50만~)

++깜짝 팁! 여행경비

러부리 후렌즈의 1인당 여행경비

(인천-나이로비 왕복, 대한항공 직항, 7박 10일 일정)

*비행기 130+tax 40 만원

*현지여행사 1610달러, 약 185 만원

(룻지 1박, 컨트리 클럽 2박, 캠프 사이트 2박, 호텔 2박, 전 일정 현지인 가이드/운전기사, 식사, 공원/섬/시내투어 입장료)

*공통경비 67달러, 약 8 만원

(가이드 전 일정 팀, 공통 팀, 음료값 등)

*(옵션)별론 투어 430달러, 약 50 만원

=> 1인당 총 약 413 만원



프롤로그 3

여행 전 준비해야 할 것들

황열병 주사, 말라리아 약

아프리카 여행은 특별하다. 그 여행지가 가진 이계(異界)의 느낌도 그렇겠지만, 여행을 결심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곳들보다 뭔가 더 많기 때문이다(남미나 알래스카 같은 곳은 안 가봐서 비교가 정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출국 최소 10일 전에 황열병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리고 말라리아 예방약도 함께 처방 받아서 준비해가야 한다. 주사는 국립의료원과 인천공항에서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여 접종 받아야 하며, 한번 맞으면 10년 정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미 지역을 여행하게 되더라도 유용하다. 황열병 주사는 약간의 부작용을 동반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쇼크까지 올 수 있어서 주사를 맞은 후 30분 정도는 병원에 머무르길 의사가 권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는다. 나도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별다른 느낌이 오지 않아서 그대로 회사로 출근했다.)

난 국립의료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문진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2-3분 문진 후 바로 주사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의 15분 정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이런 경우 여자들은-간혹 남자들도- 오해하게 된다. '내가 예뻐서...?' 하지만 동일한 의사에게 주사 맞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의 회사 동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나의 오해는 오해인 걸로.)

난 분명 '팔랑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험을 무시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강력한 조언으로, '파상풍'과 '장티푸스'까지 다 맞았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 나오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돈 몇 푼 아끼자고 간과하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짓이지 싶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주사를 맞았다(하지만 인지부조화에 의한 합리화를 했던 것일 지도).

주사 후유증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 겪어보지 않은 형태의 두통이 조금 있긴 했지만(머리 정수리에 돌덩이가 하나 얹어진 느낌과 지속적인 미열?)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주사를 맞았던 달빳은 팔이 육신거리고 아팠다고 한다. 주사를 맞고 3일 정도는 격한 운동과 음주를 금하라고 하는데, 사실 난, 그 규칙을 지키기가 더 힘들었다. ('금지'는 새로운 일상을 부른다. 평소에 먼지에 묵혀두던 운동기구 '트위스트런' 위에 수시로 올라가고 싶은 충동이 들고, 연락도 없던 옛 동료들이 갑자기 나의 동네에서 번개를 쳐서 불러낸다.)

말라리아 예방 약은 국립의료원에서 처방을 받아 바로 사오긴 했지만, 고민이 조금 되었다. 예전에 달빳이 중국을 여행할 때 먹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이번엔 안 먹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내가 일하는 곳(이직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이곳을 '회사'라고 불러야 되나 '기관'이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하게 된다. 나는 현재 국제구호개발NGO에서 일한다)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하게 된 많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며, 그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파견되었던 동료 한 명도 실제 걸렸었고 그로 인해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무서움을 알고 있는 내가, 약간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예방약을 안 먹는 것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난 한국에서도 모기에 굉장히 잘 물리는 체질이다. 어느 연구에서 10명 중 1명이 그런 체질이라는 조사를 내놓았는데 내가 그 10%에 들어가는 인물임에 틀림없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동반 여행자가 있는 상황이니, 이 여행에서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과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난, 말라리아 약을 먹기로 결정했고, 달빳도 설득해 먹이기로 결정했다. (워니도 안 먹을 생각이면 2배의 노력을 하려고 하였으나, 둘은 생각보다 쉽게 설득되었다.)



이 번 여행을 나와 함께 한 캐리어, 사이즈가 커서 잘 안 가지고 다니지만, 이번에는 10일에 육박하는 일정이라 데려감. (하지만 플라스틱이라, 이젠 새로 사야 할 듯_2009년 생일선물로 준 선영님께 감사!)

떠나기 전 러브리 후렌즈를 나타내는 핸드 사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난 참 이런 거에 열심!), 실제로 사진 찍을 땐 많이 못 했다; 그래도 공항에서 출발 전엔 한번쯤 짚어주는 센스!



여행 1,2일차(9/27~28)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조차 여전히 우리가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다는 실감은 나지 않았다. 당일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퇴근 후 부랴부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13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그저 멍한 상태에서 받아들였다.

3명이 일행이다 보니, 나와 달빰이 A, B석에, 워니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C석에 앉게 되었다.

(사실 나를 비상구석을 노리기 위해 날짜까지 세어가며 인터넷 자리배정을 위해 애썼지만,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의 자리배정 UI가 이상-웹기획자 시각에서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함-해서 2일 정도 삽질하다가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해보고 나서야 사람이름 앞의 체크박스는 아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관계자가 이거 보시게 되거든 수정 좀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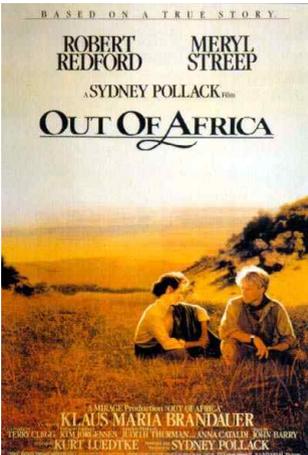
워니의 옆 자리엔 백인 여성이 아기를 데리고 앉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캐나다인 모자(母子)였다. 아기는 13개월. 엄마를 그대로 빼다 박은 아기는 신기하게도 중국어와 영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이었다. 캐나다 엄마가 중국에서도 산 적이 있어서 아기도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어가 가능한 워니는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기'라는 존재들을 '울고 떠들 수 밖에 없는 인간 종'으로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 녀석은 어찌나 얄전하고 똥똥해보이던지, 건너 편에 앉아서도 가끔 넘겨다 볼 정도였다. (물론, 3-4번

정도 장난감을 던지기도 했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나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영화들을 가끔 적 다 챙겨보려고 하는 편이다. 이번에도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 총 6편 정도의 영화를 볼 수 있어 행복했다.

아래는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들의 간단 리뷰.

(그나저나 왜 비행기 안의 영화들은 한글 자막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지 모르겠다. 거의 모든 영화가 더빙이라서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더빙된 영화에는 몰입하기가 너무 힘든데, 왜 굳이 더빙만 제공하는 지, 궁금할 따름. 웹에 관련 정보가 있을까 싶어 뒤져봤지만 못 찾았다. 하지만 그나마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조용한 편. 아시아나에서는 진짜 거의 안 들리더라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

난 그 동안 못 봤었는데, 역시 아프리카 직항에는 변치 않을 기본 영화 옵션이 된 듯 하다.

워낙 옛날 영화라 더빙판이 아닌 한글 자막 판이 제공되고 있어서 훨씬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아마 이 영화로 케냐는 엄청난 부가효과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여주인공인 카렌 브릭센 여사가 실질적으로 케냐에 기여한 바도 컸고 현재도 큼에 틀림 없다.

실화에 바탕 하였기 때문에 스토리의 재미 면에서는 드라마틱한 부

본이 조금 떨어지지만, 볼거리와 여주인공의 당당함,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은 보기 좋았다.

다만, 개인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애정선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지금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서로 호감이 있는 건가, 근데 그럼 저 남자는 뭐야...?'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봐야 했다는!)

어느 블로거의 영화평에는 이 영화가 케냐인들을 너무 야만인화 했으며 비판했는데, 글썄... 내가 NGO에서 일하면서도 인권감수성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이 정도로 다뤘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여지' 를 던져주며 인간 평등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었나 싶다. (막판에는 카렌이 흑인 하인의 손에 끼웠던 장갑을 손수 벗겨주고, 집사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이바샤의 크레센트 섬에서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곳에서는 어느 장면에서 그곳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락아웃:익스트림 미션> ★★★

이거 별 기대 없이 그냥 봤는데, 오, 대박. 가이 피어스 캐릭터 완전 잘 잡았다. (남자분들 좋아할 스타일)

사실 내용은 좀 뻔한데, 일단 SF라는 점에서 나한테는 점수를 먹고 들어갔고 여자 주인공이 익숙한 얼굴이라 (<테이콘>에서의 납치당한 딸 역의 배우, 금발로 변신해서 나와서 더 예쁘다.)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

가볍게 SF 액션 영화 한 편 보실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할 만 하다.

<댄싱퀸> ...은 보다 잠들어 버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 되는 상황이라. (고로 별점은 불가!)



☞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 조금 걸어가면 비자를 받는 곳(↓)이 있다. (사진으로 다시 보기 전까진 공항 이름도 몰랐네!)



내 가방과 워니의 가방을 찾고 달빛의 가방을 기다리며 ☞



나이로비에 도착해서 조금은 헛갈리는 구조의 공항을 이래저래 빠져 나가서(보통 공항이 작으면 이것저것 더 많이 배치해놔서 어려운 것 같다) 입국 비자도 받고(1인당 50달러. 관용여권이 있는 분들은 업무 차 왔다고 하면 면제될 수도 있다는 걸 워니가 출입국 직원들에게서 들었으나, 이미 그녀는 관광으로 왔다고 내뱉은 후였다라는 슬픈 이야기...) 체류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할 용돈을 환전(3명 합쳐서 100달러-8000실링-바꿈. 기념품 비용을 넣지 않으면 충분)해서 입국장에 들어섰다.

전에 다른 곳을 여행할 때, 현지 여행사로부터 '비관여' 취급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걱정은 됐었는데(그래서 미리 메일을 통해서도 현지에서 챙겨주는 지 확인까지 했다), 입국장에 굉장히 눈에 띄시는(?) 남자분이 밝은 갈색 가죽 자켓을 입고(이 때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웬 가죽자켓?' 이라고 생각했으나, 며칠 지내면서 날씨를 경험하니 이해가 갔다) [워니 x 3](친구의 실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별명으로 적용)이라고 손으로 쓴 A4 종이 한 장을 들고 서 있었다.

아프리카를 오기 위해 많은 여행사를 뒤지진 않았지만, 사실, 처음 마음에 두고 있던 여행사는 다른 곳이었다. 워낙 이런 계통의 여행사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곳이었는데, 여행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숙소 등은 훨씬 안 좋았는데) 나중에 찾게 된 [올댓사파리(www.africasafaris.co.kr)]를 최종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대표: 같이 온 다른 팀들은 벌써 가셨어요,
조금 늦게 나오신 편이네요,

쥬: 아예, 저희가 비행기를 빨리 타서 짐이 좀 깊숙하게
있었나 봐요,

진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찌 그리 순발력 있게 얼버무렸는지. 사실 짐 하나가 조금 늦게 나오긴 했던 것 같다(돌아온 지 5일쯤 되어서 짐 필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워니와 내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갔다. 칸이 2칸, 기다리는 사람이 2명. 그렇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우리가 나왔더니 달뻗도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다. 달뻗이 다녀올 동안, 난 짐을 지키고 워니는 실링 환전을 하러 갔다.

달빳이 나온 뒤, 내가 입국장을 향해 가장 앞장서서 나온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이대표의 A4 종이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가서 인사를 한 후 친구들을 찾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대표와 나만 둘이 영문을 모른 채 어색하게 기다리며 서 있어야 했다. 난 수염 기른 아저씨를 두려워하는(안 좋아하는?) 편이라 상당히 불편했는데 말이다. (이질감 때문인가. 우리 식구들은 남자들도 털이 없는 편이라.)

나중에 들었는데, 달빳이 세관신고서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서 그거 찾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막 안 내고도 나가던데, 우린 착실해도 너~무 착실했다.

일정 체크와 잔금 계산을 위해 공항 주차장 옆의 커피숍으로 향했다. 이때 케냐에서의 첫 커피를 마셨는데, 이때는 이것도 꽤 맛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웬걸, 그 뒤로 마신 커피들은 훨씬 더 맛있었다.



(참고로 난 아메리카노는 절대 안 마시는 인간으로, 달고 우유가 풍부해야 커피 취급을 하는 편인데, 케냐에서는 향이 달콤해서 미각 자체로의 단 맛은 크게 필요치 않을 정도였다. - 하지만 어지간해선 항상 설탕은 넣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니까.)

사실, 처음 워니가 올댓사파리에 여행상품을 문의하고 일정을 받았을 때, 그 이메일이 너무 기본적인 형식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여행사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주소(URL)를 달라고 했었다. 이렇게 영업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가볍게 '구어체 메일'

로만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던 건, 출발 2일 전쯤에는 어느 정도 여행사 일정표의 형태를 갖춘 문서를 보내준 덕이었다. 하지만 그 메일에도 추가적인 설명이 하나도 덧붙여지지 않고 '동물이름 체크리스트'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쿨하게' 운영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싶은. (나중에 보니, 심지어 그 일정표도 군데군데 상당히 비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캠프에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이 호텔식이라든지)

일정 체크 후, 우리의 전담 가이드 폴과 정식으로 인사했다. 기대했던 케냐인의 인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스타일이었는데, 이대표 말이 '그래도 나름 마사이족'이라고 했다.



(좌: 일반적인 마사이족들의 체형 / 우: 우리의 폴~)

'마사이족도 체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풀 같은 사람도 있겠지'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여행을 마치기까지, 사실 풀 만큼 배가 많이 나온 마사이족은 못 봤던 것 같다. (사실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불편해서 안 보이는 곳에선 많이 먹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풀은 자신의 차로 가이드 일을 하고 있고, 가이드 영어가 가능하고, 투어가이드 관련해서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고 했으니, 그 정도면 케냐에서도 상당히 부유한 엘리트 쪽에 속할 것이다.

<잠깐, 알아볼까?> 케냐

(*자료 출처: 네이버 검색에서 발췌 및 수정하여 정리)

세계
아프리카
케냐

주요도시 ▶
nGlobe 3차원지도 ▶



케냐
Kenya

수도 **나이로비**
국가 모든 만물의 주
여

언어 **영어, 스와힐리어**

면적 **580,367km² 세계 49위 (CIA 기준)**

인구 **약 43,013,341명 세계 31위 (CIA 기준)**

GDP **424억\$ 세계 83위 (2012 IMF 기준)**

종교 **개신교 45%, 가톨릭 33%, 토착종교 10%**

전압 **220 ~ 240V, 50Hz를 사용**

전화 **케냐 국가번호 254**

관광명소 ▼



카렌 블릭센 박물



지라프 센터



마사이마라 국립



나이로비 국립공

한국과도 면적이나 GDP를 비교해보자

	<p>언어 한국어 면적 99,720km² 세계 109위 (CIA 기준) GDP 1조1635억\$ 세계 15위 (2012 IMF 기준) 종교 불교, 그리스도교, 유교, 신흥종교 1인당 GDP 2만3679\$ 세계 34위 (2012 IMF 기준)</p>
<p>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수도 서울 국가 애국가</p>	

+여기엔 인구가 빠져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4천 9백만 정도로 세계 25위(CIA 기준).

나이로비에서 암보셀리로 오는 길은, 처음은 감탄의 연속이었다. 우리에게 너무나 생경한 모습들이 줄지어서 나타나니 말이다. 꽤 먼 거리라서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도로에서 달리는 차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톰슨 가젤, 기린 등 야생동물들의 모습과 킬리만자로의 위엄은 "와!"라는 감탄사를 어린애들처럼 내뱉게 만들었다.

(좌: 톰슨가젤
우: 기린)



케냐에서의 이동은 대부분 차로 이루어지며 생각했던 것보다는 도로가 잘 닦여있었다. 하지만 달뻗은 직업병인지 대부분의 도로가 일차

선이라 추월할 때마다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 맘에 많이 걸렸다고 한다.

이동(짧게는 2-4시간에서 길 때는 6시간)을 하는 중간에는 한번 정도씩 휴게소에 들르는데, 모두 화장실을 제공하는 기념품 샵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면 물건을 강매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이 친절했고 화장실도 놀랄만큼 깨끗하게 꾸려놓고 있었다.



(생활 곳곳의 아프리카 예술!)



처음 들렀던 휴게소에서는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한 직원이 자신의 사촌이 '2012 대구 육상 경기' 마라톤에서 1등을 했다는 '토마스'(Thomas)였다. 그는 특히나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한글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줬었는데, 재미있게도 워니는 업무 때문에 그 행사장에 있

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질 때 토마스가 한국에서 가져 온 기념품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이후에도 케냐인들은 상당히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걸 여러 상황에서 알 수 있었다), 워니가 그런 거 주면 안 된다고 들었다며 그냥 자리를 떴다. 근데 그 의미가 뭐였는지 난 정확히 모르겠다. 속으로는 '케냐여고생 기념품 사건' 때문에 그런 거 받아오지 말라고 들었던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실패! (여행기 작성 중에 여러 번 물어봤지만, 성과급 확보를 위한 문서 작성으로 너무 바빴던 나의 친구는 끝내 대답을 보내주지 못하였다...;;)

잠깐 자리를 비웠던 풀은, 작은 생수병(500ml)이 20개쯤 포장된 팩을 사서 보조석에 실으며, 우릴 위한 것이라고 미소 지었다. 이런 생수는 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돈이 있는) 관광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현실이, 나에게는 편하면서도 마음한 구석에는 불편한 느낌으로 자리잡았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난 금세 노곤해져 잠에 빠졌다. 약간 선잠을 잤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자는 동안에 길에서 보이는 모든 아이들을 우리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고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 꽤나 깊이 잠들었던 것 같다.



잘 거 다 자고 일어날 즈음, 우리의 첫 번째 숙소인 '암보셀리 소파 롯지(Amboseli sopa lodge)'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멋진 풍

경에 놀랐고 사람들의 유쾌한 미소와 환대에 기분도 좋아졌다.



숙소도 마치 동화 속 버섯집(?)마냥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침대마다 케노피도 다 달려 있어서 동화 같은 분위기를 더 자아냈다. (반전은, 그 아름다운 케노피에 구멍이 상당히 뚫려있어서, 아마 바늘과 실이 있었다면 난 꿰매고 잤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그건 없었기 때문에, 탄력이 있는 케노피 천을 서로 얽아매어 묶어서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방 열쇠도 센스충만!)

++깜짝 팁 여행갈 땐 꼭 반질고리를 챙겨요~

다른 나라의 많은 호텔에는 욕실 용품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실제 케냐에서 묵었던 마지막 호텔엔 있었음- 케냐처럼 물자가 부족한 곳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부피도 얼마 안 하니 챙겨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실제로, 저는 첫날부터 옷도 터졌는데(;;) 못 꺾매서 좀 불편했다는.

일단 가방을 간단히 풀고, 침대 3개의 위치 선점을 위해 '가위 바위 보'로 정했다. (침대에 차이는 없어서 굳이 침대선택을 위해 이럴 필요까진 없었지만, 난 항상 이런 것은 게임을 하자고 하는 편이다. 그냥 정하면 재미도 없고, 혹여나 누군가 조금 안 좋은 것을 배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괜한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침대를 정하곤, 케냐에서의 첫 식사(점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는데, 조금 짜고 향신료가 강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맛있었다. 케냐에서는 특별히 전통식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일반 서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야마초마(Nyama Choma)'라는 야생동물 바베큐 요리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거 한 가지 정도인 듯 하다.



(👉 야마초마, 사진 출처: 한진관광 블로그)

서양식에서는 항상 수 많은 포크와 스푼, 나이프가 테이블에 놓여져 있다. 언제나 대충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매번 조금씩 사용에 실수를 하기도 한다. 조금 더 교양 있는 인간인 척 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숙지해볼까?

<잠깐, 알아볼까?> 서양식 테이블 접시/스푼/나이트/포크 사용법



(☞ 사진 출처: 인터넷)

기본예절

- 나이프, 포크, 숟가락은 양쪽 바깥 부분부터 요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용. (이건 코스에만 해당하겠죠.)
- 빵은 큰 덩어리째 버터를 바르지 말고 한입 크기로 떼어내어 자신의 접시에 떨어놓고 버터를 바르기.
- 물잔은 오른쪽의 것이, 와인잔은 왼쪽의 것이 본인의 잔.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저 사진은 조금 잘못 되었네요. 아하하-)

플러스

- 빵과 샐러드 접시는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자신의 것.
- 납작하고 작은 볼이 나왔으면 손으로 먹는 음식이 나온다는 의미.
- 식사를 끝냈을 때에는, 냅킨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 표시.
- 손을 씻는 핑거볼에는 두 손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한 손씩 번갈아가면서 씻기.

(내용 출처: 유일가구 블로그)

점심을 배 불러 먹고 롯지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기로 했다. 산책길에 우연히 발견한 '헤밍웨이(Hemingway's)'는 정말 가장 아프리카적인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사실 이후에 더 많은 것들 것 보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여기서 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장관으로 인식됐다.)

쥬: 아, 진짜...

워니: 왜? 무슨 일 있어?

쥬: 너무 멋있어서...

내가 원래 좋은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나의 경탄이 친구 들에겐 짜증내는 소리로 느껴질 만큼, 자동으로 감탄사가 나왔다.





오후 게임 드라이브 시간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어서 미리 봐두었던 수영장으로 향했다. 난 햇빛이 두렵고(살이 까만 편이라, 더욱 잘 탄다.) 다음날 또 숙소를 옮겨야 하는 것에 대한 귀찮음(수영복 말려야 하니 까)으로 달빰의 꼬드김을 고사했다. 결국 달빰만 수영을 하기로 하고 우린 옆에서 지켜 봐주기로 했는데, 달빰이 들어가자 수영장 관리 직원이 갑자기 나오더니 청소망으로 열심히 물 위에 떠 있던 나뭇잎 등을 치워줬다. 그러면서 그걸 달빰 쪽으로 휘저으며 'Big Fish'를 낚 겠다며 농담을 하곤 유쾌하게 웃었다.

케냐인들은, 자신들의 농담에 자신들이 더 웃겨 했다. 그만큼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덕분에, 그의 등장에 약간 경직되어있던 우리도 덩달아 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사실 달빰은 '큰 물고기'가 자신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모르고, 주변에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줄 알고 엄청 겁을 먹고 소리를 질렀었다고 한다. (난 그저 그녀가 신이 나서 웃는 것인 줄 알았;;)



돌집 같은 곳에서 내다본 헤밍웨이스풍경



드디어 첫 번째 게임 드라이브 시간. 긴장도 되고 약속시간에 늦는 걸 싫어하는 우리 일행은, 풀과 약속한 3 시 40 분보다 조금 일찍 롯지 입구에 도착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에 여유만만하고 '인샬라(Inshallah: 신의 뜻대로)'를 입에 달고 다는 성격들이라고 해서 이럴 때도 늦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풀은 이미 도착해서 생수병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얼음을 아이스박스에 준비해두고 롯지 직원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후부터 계속된 '약속'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케냐 사람들은 언제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간혹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게을러서 못 사는 건데 왜 해외에서 원조를 계속 해줘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들이 절대 게으르지 않으며, 단지 척박한 환경 탓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움이 조금 필요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 환경과 관련이 없는 산업이 이들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된다면, 충분히 자신들의 힘으로 생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겪은 그들에 근거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잠깐, 알아볼까?> 왜 '게임 드라이브' 라고 할까?

정확하진 않지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근거한) 워니의 의견 + 웹서핑을 통해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 과거엔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을 사냥 다니는 것이 하나의 스포츠이자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동물들을 찾아 돌아다니던 것이 오늘날 '게임 드라이브' 로 변모했다는 설이 있다.

출발한 지 얼마 안되어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멀리 보이는 다른 곳들은 여전히 햇빛이 창창한데, 우리 위를 지나는 짙은 회색 빛의 구름 밑으로는 물을 흩뿌리는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비를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치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둘째 날도 비가 또 와서, 생각보다 이 곳에 양은 적지만 꽤 자주 비가 내리는 건 아닌가 생각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비를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풀이 '아주 시원한 것으로' 물을 한 통 달라고 했다. 운전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가 뚜껑까지 아예 따서 건넸는데, 들이붓듯이 그대로 목구멍으로 원샷.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모습, 우린 그 작은 묘기(?)에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게임 드라이브는 사파리(공원) 내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흙길을 달린다. 암보셀리는 (나중의 공원들과 비교해봤을 때) 특히나 메마른 지역이었다. 그래서인지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흙 냄새가 강했는데, 한국에서 그 냄새를 맡는 것과는 달리, (기분이었는지 모르지만) 더 '건강한 흙 바람'으로 느껴졌다. '아, 자연이다!' 이런 느낌?

(↓남의 차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차는 조금 더 서민적이었어요 ㅋ)



폴이 타조가 나타났다면 첫 번째 동물의 출현을 알려줬다. 우리의 반응은, '뭐? 타조? 그런 건 동물원에서 많이 봐서 별로 안 신기한데 ...' 라고 속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래도 관광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사진은 찍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이곳에서는 우리가 가젤 영양 종류를 신기해하듯이, 타조가 더 보기 힘든 존재라 했다. 더불어, 폴은 덧붙였다. '고기가 엄청 맛있다'고(;;).



암보셀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은 '와일드 비스트(Wild beast)'였다.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볼 기회가 없었던 동물인 셈인데, 마치 그리스 신화 같은 곳에 나올 것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뭔가 근엄하기도 하고 풍기는 분위기가 신비했다. 이후의 다른 공원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암보셀리에서 처음 봐서인지 다른 곳에서 보는 것들과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난 녀석들에게 빠져버렸다.

길을 따라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코끼리 떼가 모여있는 곳이 있었다. 풀은 그들을 보러 가자고 차를 돌렸다. 가는 곳곳에 원숭이들도 꽤 있었는데, 우리가 원숭이들을 신기해하는 반면, 풀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개나 고양이를 보듯이 원숭이를 대했다. (사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우리가 여행 다니는 동안에도 개, 고양이 보다 원숭이나 가젤, 얼룩말이 훨씬 더 많았다.)

갑자기 풀이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무선을 듣더니, 갑자기 차를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진 않았고, 무슨 연락을 받았다고만 말했던 것 같다. 이제껏 운전했던 속도 중 가장 빠르고 급하게 차를 몰아서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어리둥절해 했던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나타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도착한 곳에는 이미 여러 차량들이 무전을 들었는지 달려와 모여있었다. 풀이 잠시 살피더니, 차량 우측 너머의 (200미터는 족히 됐을 법한 거리에) 마른 풀잎들이 우거지 곳을 가리켰다.

풀: 치타예요,

러부리: 예? 어디? 어디에? 안 보이는데?

여행 내내 느꼈지만, 가이드들은 매의 눈 을 가지고 있다. 도시

정경에 익숙한 우리들은 동물들이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기가 힘들었다. (3명 중 내가 제일 못 찾았던 듯;)

워니: 어, 저기! 풀 사이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카메라의 광학 줌을 가동했다. (내 카메라는 중고로 산 올림푸스 제품인데, 이번 여행에서 그 진가를 봤다. 처음 샀을 땐 생각보다 얼굴 뽀샤시가 안 되어서 실망하였으나-인물 사진은 올림푸스가 제일 예쁘게 나온다고 했건만-똑딱이 임에도 30배 광학 줌이 가능하여 원거리 풍경을 찍기엔 최고였다.)

'오, 뭔가 움직인다!'

그래도 너무 멀긴 멀었다. 나름 당겨서 찍긴 찍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진이 나오진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보기 힘들다는 치타를 야생에서 목격한 느낌은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그 치타를 볼 수 있게 해준 폴의 노력에 고마웠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전 시스템에도 감탄했다.



폴: 우리 가이드들끼리는 다 친구라서, 이런 정보를 무전기로 공유
해요,

쥬: 아, 이건(무전기)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폴: 아뇨, 좋은 팀웍 덕분이죠,

순간 뭔가에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
일지도, 폴의 실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
만(한글로 적어서 그렇지, 폴의 영어나 나의 영어나, 자기 식대로 말하기는
매한가지. 영어권 사람이 있었다면 결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 대화),
나는 자연스럽게 기계 덕이라고 이야기했고, 폴은 사람의 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던 들,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면 자신
의 손님들에게만 경쟁적으로 발견한 동물을 보여주고 가이드로서의
주가를 올리려 할 수도 있다. 그게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들은 종종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
해 몰락한다. 이대표는 케냐사람들의 공생하고자 하는 방식(‘같이 나
눠 먹자’ 마인드?)이 공산주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싫다고 했지만, 나에
게는 어쩌면 이것이 더 자연적이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식구들은 다 알지만, 난 어릴 때부터 ‘우물 파지 않은 자,
물도 마시지 말라’ 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휴
일에 라면을 끓일 때 도와주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철저하게
라면 한 가닥도 나눠주지 않았다. (내가 배불러서 못 먹는 상황이 아니
라면 - 이것 때문에 자라면서 오빠와도 꽤나 싸웠다.) 그랬던 내가 생각

이 이렇게까지 바뀌었으니, 철이 들긴 들었나 보다.

치타를 다 구경하니, 풀이 다시 코끼리를 보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코끼리 떼들은 이미 다 이동하여 몇 마리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풀은 괜찮다며, 다른 곳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을 거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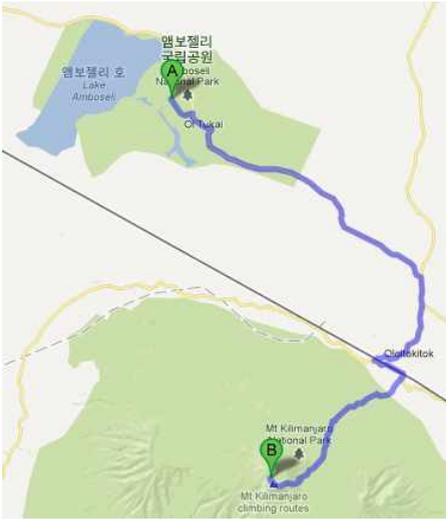


케냐에서의 얼룩말은, 정말이지, 우리가 35년 평생 TV와 영화에서 보았던 마리수를 다 합한 것의 100배쯤을 볼 수가 있었다. 여행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본 동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게다가 우리의 기억보다 너

무 똥똥하고(배가 어찌나 동그랗게 쳐지는지...;) 날렵하지 않아서 실망도 했지만, 녀석들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둔하면서 겁도 많아 보여서 백치미가 있었달까? 그래서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케냐의 암보셀리에서 국경 너머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이 청명하게 보였다. (↓구름에 묻힌 킬리만자로 정상)





(👁️ 직선거리는 못 찾겠고, 암보셀리에서 킬리만자로 꼭대기까지 경로를 잡았을 때, 구글지도에서는 걸어서 90km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고 하니, 목포에서 광주 무등산이 보이는 정도랑 비슷할까?)

풀은 우리가 운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여행 내내 그런 느낌은 계속 되었다.

코끼리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모여있는 곳에 풀이 차를 세우곤 그곳이 '암보셀리의 절경(Amboseli's Climax)'이라고 했다. 참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니 바로 알 수 있었다. 그곳은 그냥 막 찍어도 그림이, 작품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이다. (정말 재미있게도, 거기서 찍은 우리들 3명의 사진이 동일한 것인 마냥 똑 같은 구도와 느낌이 나왔다. 참에 내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확인하곤, '나의 실력이 진정 이 정도인가!' 감탄했었는데, 워니의 사진을 확인해보곤, 피사체 덕임을 인정하고 조금 실망했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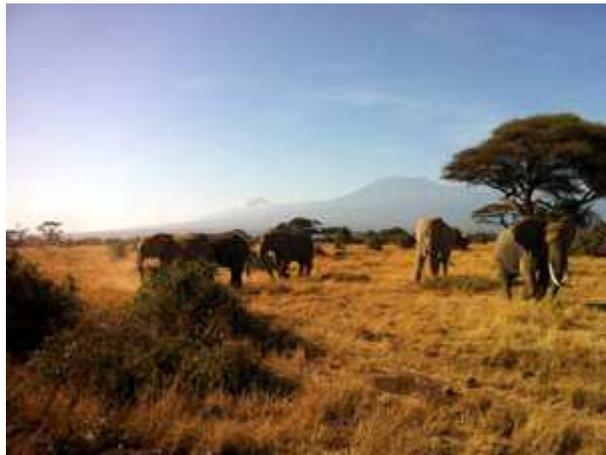
킬리만자로가 5,800m 떨어진 지점에서 코끼리들이 만들어 준 그 풍경은, 현재 나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 내가 찍은 사진,
내 PC 바탕화면)



(워니의 사진 📷
-아이폰으로 찍은 거라
비율은 다르다.)



돌아오는 길엔 기린 가족을 만났다. 기린의 얼굴은 정말이지 착하게도 생겼다. 그 쳐진 눈 때문에 더 착하게 보이는 것이겠지만, 여유 있고 우아한 걸음걸이는 마치 느린 발레 동작을 보는 듯했다.



멋진 저녁 노을로 이 날의 게임 드라이브는 마무리되었다.



도착해서 씻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조금 기다려야 했는데, 이때 우리가 무료해 보였는지 직원 한 명이 말을 걸어 몇 마디 나누게 되었다.

워니: '고맙다' 를 뭐라고 해요?

직원: '아산테' , '아산테 사나' 라고 해요.

여기서 우린 '아산테 사나(Asante sana: Thank you very much)'와 '카리부(Karibu: Welcome)를 배웠다. '아산테'가 'Thank you'와 대치되고 '사나'가 'very much'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특이한 것은, '카리부'가 'You're welcome'과 'Welcome(환영인사)'로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welcome'이라는 영어 단어가 '카리부'로 대치되면서 그 의미까지 함께 적용되어버린 사례일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왜 우리가 '천만에'에 대한 뜻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환영해'를 가르쳐주는 것인지 난감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밤이 다가오자, 이곳은 공기가 좋으니까 별이 잘 보일 것 같다고 다들 기대에 넘쳤다. (우린 서로 정말 달라 보이는데, 가끔 이런 경우-이번 여행지 선택도 그렇고-에 놀랄 만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15년 정도 친구 먹고 있는 거겠지.) 나는 반딧불도 혹시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곳에선 한번도 보지는 못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여행기에서는 반딧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우리가 못 보았을 뿐, 아프리카에도 반딧불이 있는 건 확실하다. (왜 못 봤을까? 흠.)

정전을 대비해서 침대 옆에 초와 성냥이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물건들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성냥불을 켜서 초에 붙였다. 워니가 불장난 한다고 놀렸지만, 그게 그곳의 분위기와 잘 어울려서 잠시 켜 두었다. 그리고 15년 지기 친구인 워니가 성냥불을 못 붙인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달벳과 나, 둘 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무서워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걸까? 친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건 언제나 재미 있다!

<잠깐, 알아볼까?> 기본 스와힐리어 회화

아산테 Asante: 감사합니다, Sana를 붙여서 강조.

카리부 Karibu: 환영합니다, & 천만이에요. (여기에도 Sana를 붙이는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라고 누군가 써놨던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붙여서 사용)

하쿠나 마타타 Hakuna matata: 문제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잠보 Jambo: 안녕하세요.

(마사이족들은 'Sopa' 라고 한다, "소~파 소~파!" 라며 흥겹게 말하면 된다.)



여행 3일차(9/29)

천국 같았던 크레센트 섬의 보트사파리

날씨가 심하게 건조해서인지, 근 1년 여 동안 아침저녁으로 아파오던 새끼 손가락의 관절통이 전혀 낫지도 않았다. 반면, 건조해지는 환절기에 찾아오는 '피 코딱지'(이걸 전문용어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음)는 여행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날 괴롭혔다. (이건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10일 이상 지속되었다.)

지난 밤 묵었던 롯지는 하루만 숙박하기로 한 거라, 나이바샤(Naivasha)로 떠나기 위한 짐을 다시 꾸려서 프론트 근처로 가져다 놓곤 아침을 먹으러 갔다. 전날 점심과 저녁엔 음료가 기본이 아니어서 물과 콜라를 따로 계산(500실링: 한화 7500원 정도라서 꽤 비싸게 느껴졌다. 특히나 달빳은, 평소에도 밥 먹을 때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 편이라서 식당에서 음료를 권하는 문화가 상당히 불편했다고 한다)해야 했지만, 아침은 주스와 우유 등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고 오믈렛도 준비되어 있어서 더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맛난 것은 커피였다고나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케냐의 커피에 감탄하며 아침 식사를 마쳤다.

전날 9시(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예정했던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를 너무 즐기다 보니, 풀과 만나기로 했던 7시 30분을 약간 넘기고 말았다.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풀은 예의 그 웃는 얼굴로 맞아주며, 지난 밤에는 잘 잤는지, 꿈은 무슨 꿈을 꿨는지 물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였는지 기분이 좋다며 덩실덩실 춤도 쳤다. 마치 곰돌이 푸 같았달까(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닮았다). 정말 유쾌한 우리의 풀!

우린 다시 암보셀리로 아침 게임 드라이브를 떠났다. 이번엔 길거리에서 임팔라(Impala) 떼가 우리를 배웅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미드 <슈퍼내추럴>의 주인공의 차종이 '임팔라'인지라, 굉장히 관심을 두고 봤었던 동물이었는데, 웬걸, 돌아와서 사진을 다시 보니, 그랜트 가젤(Grant's Gazelle)과 구분도 못하겠다;) 아침이라 좀 더 신선한 공기의 느낌이 색달랐다. 코끼리 떼와, 한국과는 사뭇 다르게 생긴 토끼(앞발이 왜 저렇게 길까;)를 보는 것을 끝으로, 우린 암보셀리를 떠났다.



(좌, 그랜트 가젤/우, 임팔라, 사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심지어 이 사진으로도 구분 불가;

풀은 국립공원 내의 비포장 도로에서는 70km 정도, 일반 도로에서는 100km 정도의 속도로 운전을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편이었고, 조금이라도 차가 덜컥거리면 항상 괜찮은지 물어보고 우리에게 사과했다. 이게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가이드나 드라이버의 차를 타 본 후에는, 풀이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여러 모로 우린 참 운이 좋았다.

암보셀리를 떠나는 길에, 워니가 풍광이 좋아 보이는 곳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풀에서 요청했다. 사실 난 귀찮아서 맘이 조금 있더라도 이런 요청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여행할 땐 이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이 나온다. (고맙다, 워니야. 카메라까지 챙겨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휴대폰 카메라만 믿어 버렸 뉘.) 그 자리에서 워니가 우연히 찍어 준 무심한 옆모습의 독사진이 현재 내 페이스북 대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린 점프샷(셋이 같이 찍을 땐 절대 심심하게 찍지 않는 러부리. 우리가 이런 게 잘 맞아서 참 다행이다)을 찍었는데, 풀은 생소한 그 상황이 무척이나 재미있었는지 굉장히 즐거워하고 사진 확인을 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뭐 이런 여자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말풍선을 얼굴 옆에 붙인 것처럼 보였다.

이날 찍은 최고의 점프샷! -사진사 워니



세 명 함께 시도해보았으나-사진사는 풀-역시 어려운 단체 점프샷; 어정쩡한 도레미 단계가 아주 가관이다. ㅋ. (창피하니까 좀 작게)



나이로비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이 곳에서는 언제나 우연이지 만!) 도로 옆에서 거닐던 기린 가족과 조우했다. 역시 개나 고양이보다 길에서 만나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가 훨씬 많은 곳이, 아프리카, 케냐였다.

차로 한참을 달리는데, 앞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도로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알고 보니 대형 트럭(시외에서는 일반 차량보다 대형트럭이 훨씬 많이 다닌다)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나 있었다. (이후에도 한 번 더 목격) 경찰차도 와 있길래 무심코 셔터를 눌렀는데 폴이 깜짝 놀라며 저지했다.



맞다, 이런 곳에서는 경찰 같은 공권력을 함부로 사진 찍는 것도 당연히 금지될 수 있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한 나의 실수였다. 넘어져 있는 트럭도 사진을 찍었지만, 운전자가 다쳤을 수 있는 마당에, 무슨 신기한 광경이라도 만난냥 사진을 찍고 있는 내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져서 더 이상은 차마 찍지 못했다. 트럭 앞에 앉아 있던 놀란 표정의 운전자는, 다행히 많이 다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걱정스런 내 표정을 보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외치는 걸 들었다...고 난 생각했다.

(이 부분은 그가 영어로 했는지, 스와힐리어로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간혹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 소통하게 되는 경우, 전혀 못 알아들을 말인데도 그 의미가 이해되는 신기한 상황을 모두들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 특히, 아주머니들은 한국말로 외국인들과도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은가 - 이때가 그랬다.)

나이로비에 도착해서는 간단히 점심(한국인 여사장님이 하시는 한식당에서 비빔밥과 설렁탕)을 먹고 또 바로 나이바샤(Naivasha)로 출발했다.



(나이로비(공항)→암보셀리(1박)→나이로비(점심)→나이바샤)

중간에 '그레이트 리프트 벨리(Great Rift Valley: 大地溝帶)라는 건데, 지구대 자체가 뭔지 다들 기억 못하실 거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지각이 단층에 의한 함몰로 생긴 길쭉한 요지로 지구와 혼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정의하면 지



구대는 판구조운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것을 말한다고 한다. - 그래도 어렵다;)’ 포인트에 잠깐 멈춰서 사진을 찍었다.

이곳에서는 기념품 중 돌에 글씨를 파서 판매하는 펜던트가 있어서 관심이 갔다.

(동생이 요청한 선물이 있었기에 ☺)

그리고 그간 봐왔던 케냐 특산품인 아메타이트(Ametite, 기념품상 주인은 그게 케냐에서는 황금과도 같은 거라고 했지만,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금은커녕 원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무슨 비료 같은 거라고 나온다...; 아무래도 Hematite인데 직원이 잘

못 알려준 게 아닌가도 싶고)로 만든 목걸이도 하나 살까 싶었다. 처음에 샅 주인은, 그 2개가 합쳐서 60달러인데 나에게 45달러에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까진 돈이 없다고 15달러를 제안했다(사실 나중에 가격을 보니, 이것도 많이 깎은 건 아니었음); 아저씨는 다시 40달러를 제안했고 난 20달러 밖에 없으니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다(사실이였다). 결국 아저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내게 그것들을 봉투에 담아 건네며, 자신이 정말 싸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 중에 하나를 자신에게 기념품으로 달라고 했다. 결국



나는 가져온 펜들 중, 뚜껑도 달리고 새 것인 검정 펜 하나를 주는 것으로 우리의 거



래를 끝냈다.

++깜짝 팁! 제안 가격의 1/10로 깎으세요?

여행을 마치고 정리해보니, 길거리 기념품 샵에서는 제안한 가격의 10분의 1로 깎으라는 여행사의 조언은 조금 과한 것 같다. 내가 위에서 겪은 상황에서는 10달러 정도에 정리가 되었다면 서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여행지에서 너무 모든 게 바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도껏, 기분 나빠지지 않게 물건 값을 흥정하는 것도 여행을 즐겁게 즐기는 요령이다.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를 떠나 크레센트 섬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을 달렸던 것 같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바람에 실려오는 흠냄새를 마음껏 맡았다. 나는 좀 무지몽매한 짓을 가끔 하는데, 지병인 비염이 자연의 흠바람을 맞으면 혹여나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으로 더 기쁘게 그것을 취했다. 결과는 어찌되었냐고? 글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예전보다 상태가 나빠진 것 같지는 않다. (보약 없이도 3달 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거 보니 더 견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보트사파리를 하는 장소에 도착하자, 폴은 우리를 보트 가이드인 '조니'에게 넘기고 자리를 떠났다. 조니(👤)는 구멍조끼(조금 허술해 보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레포트 하러 가면 받게 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 보여서 깜짝 놀랐다)를 우리에게 나눠 주고 입으라고 했다. 사실 일정표에 보트사파리

가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게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나이기 때문에 이후에 맞닥뜨리는 장면이 더욱 더 놀라움의 연속이 되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보트에 타기 시작했을 때, 비가 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조니도 조니의 동료도, 우리도, 모두 별 걱정 없이 그냥 보트를 출발시켜 나쿠루(Nakuru) 호수 위를 떠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채 30여 초도 되지 않아, 우리 입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달빳: 정말 천국 같다.

쥬: 그러게... 진짜,

워니: 너무 멋있어!

점점 굽어지는 빗줄기가 카메라의 렌즈로 튀면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흐트러트리긴 했지만, 호수 위의 풍경들은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초반엔 새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들이 움직이는 풍경은 마치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것만도 같은, 비현실적인 느낌 그대로였다. 게다가 호수 위로 육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군집하여 피어있는 히아신스 꽃들은 천국 같은 느낌을 더 배가시켰다. (한국의 히아신스와는 생김새가 좀 다른데, 아프리카의 것이 더 우아하고 예쁜 것 같다.)



빗방울이 좀 더 강해지자, 조니는 우리의 보트를 정자 같은 곳에 세우고, 잠시 비를 피했다 가자고 했다.

빗줄기가 약해지자 다시 보트에 올랐다. 해가 좀 나니, 호수는 아까보다 더 천국 같은 느낌을 풍겨내고 있었다. 야생동물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인간들과 어울려 있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워서일까, 그들은 우리를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자신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근처에 다가가도 크게 동요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상을 사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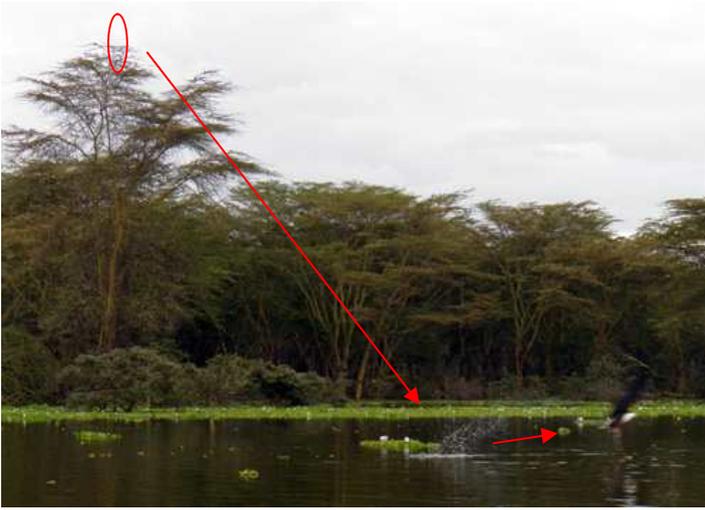


(갈매기 ↓) (하마 →)

(↑ 정체불명 새)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멋진 자연과 동물들을, 우리가 관광한답시고 훼손(어쨌든 '보트'라는 문명의 이기로 연료를 써가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래도 이기적이지만,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장관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호수 중간에서 조니가 냉동 물고기를(언제 가져왔지?) 꺼내더니 던지면 나무 위에 앉아있던 독수리가 채 먹을 거라고 했다. 우린 잔뜩 기대하며 눈을 초롱거리고 있었는데, 웬걸 물고기가 물에 닿았는데 독수리는 요지부동. 조니가 배가 부른 것 같다며 아쉬워하려는 찰나, 천천히 날개짓 하더니 어느새 획 잡아채 갔다.



호수를 어느 정도 돌고 나자, 조니는 우리를 크레센트 섬에 잠시 내려준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그쪽 담당인 '토니'에게 바톤이 넘겨졌다. 토니는 나름 멋쟁이였는데, 차분히 우리를 데리고 다니며 이것 저것 훌륭한 영어로 설명해주고 사진도 곧잘 찍어줬다. 돌아다니는 와중에 습지의 물기에 바지가 젖자, 야무지게 걸어 올리곤 가이드를 계속 했다. 고마웠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 나의 머릿속에서는 이들이 팁을 위해 저렇게 친절할 걸까, 아니면 진짜로 원래 친절할 걸까 하는 못된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헌데 팁을 위해서 친절할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나쁜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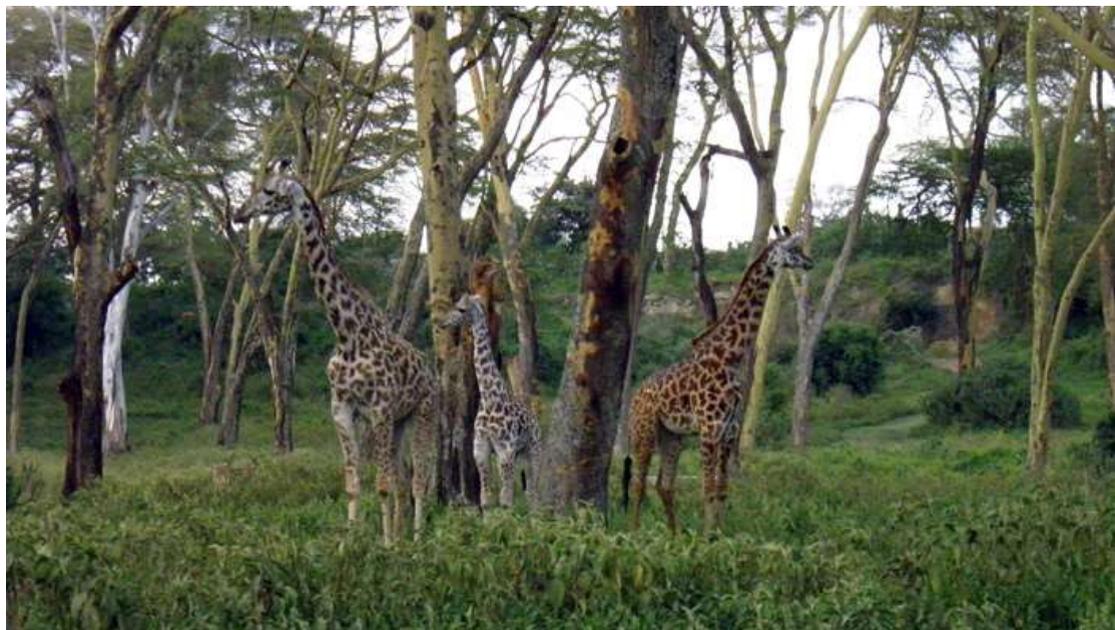
(기린을 발견하곤 우리에게 빨리 오라며 손짓하는 토니↑)

<잠깐, 알아볼까?> 크레센트 섬



나이바샤 쪽에 있는 크레센트 섬 (Crescent Island: 초승달 섬)은 엄밀히 말하자면 섬은 아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육식 동물이 없기 때문

에 워킹사파리(걸어서 짧게 사파리 투어)가 가능한 곳이다.



(기린 가족? ↑)



(↑우리가 신기한듯 눈을 떼지 못하던 얼룩말,
어려서 그런지 줄무늬가 갈색이다.)



(↑한가로이 풀 뜯는 워터벅 암컷들.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외모지만 그만큼 순박함이 있다.)



(자연 그대로, 푸른, 그 곳.)



(↑ 워니, 토니, 달빔, 나는 찍사)

러부리는 '정말 꿈만 같은 사파리 투어'라고 생각했던 나이바샤 보트 사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 후기를 보니 '볼 게 없었다'라는 충격적인(?) 감상도 있었다. 역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상황과 분위기, 함께 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꿈만 같았던 보트 사파리를 마치고 차로 돌아왔을 때, 러부리들은 조니와 토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워니에게 기념품으로 가져온 연필 세트 2개를 주자고 했다. (사실 나는 상당히 계산적이게도, 팁 대신 기념품으로 그것을 대신하려는 속셈이었다.) 워니가 연필 세트를 가져와 조니에게 전해주며 하나는 토니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자, 조니는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으로 두 손으로 소중히 그것을 받았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 폴이 문을 닫아주며 가볍게 조니에게 팁은 줬냐고 물었다. 총무를 맡고 있던 워니가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미안해하며 조니를 불러달라고 해서 토니 뒤편까지 팁을 건넸다. 워니와 달빳은 팁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폴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난감해하는 우리에게 물었다(변명할 기회를 주려던 게 아닐까).

폴: 한국에서는 팁을 안 주나요?

쥬: 우린 그런 문화가 없어서요,

그래서 외국에 나오면 항상 잊어버려요,

폴: 오, 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잘 해주면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팁 문화가 없다 보니, 해외에 나오면 항상 고민되고 번거로운 문제로 그것을 맞닥뜨리게 된다. 어느 정도 일에, 어느 상황에서, 얼마만큼이 과연 적당한 수준의 팁인 것일까? 그리고 간혹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인건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팁으로만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아마 토니는 따로 서비스 인건비 없이 팁만 받고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보트가 크레센트 섬을 떠날 때, 그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는지도 모른다. 워니 조니가 토니와 부디 팁을 나눴기를 바랬다.

<잠깐, 알아볼까?> 팀(Tip)의 적정 방식은?

여행에서 언제나 고민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제대로 정리해서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문화' 이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만,

1.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안 줘도 그만이다. 하지만 '문화' 로 자리잡은 곳(미국)에서는 아주 기본 나쁜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상은 최소 10%라도 건네는 게 통상이라고 한다. (미국에서의 평균은 17%라고 한다. 정말 맘에 들었을 때 20%이상 주므로)
2. 짐을 들어주는 포터들은 손님 수만큼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팁을 줄 필요는 없고 고마움의 표시로 팁을 주고 나누라고 하는 게 맞는 듯 하다.
3. 큰 호텔이나 서비스 시설에서는 봉사료를 서비스비용에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간혹 소규모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종업원의 인건비는 상당히 낮고 팁으로 보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우리가 토니의 경우를 혹시 그러지 않을까 했던 것처럼), 이럴 때에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라는 기본 원칙을 생각해서 행동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2002년, 체코를 여행할 때 팁 때문에 레스토랑 매니저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 동양인 관광객들(나의 일행)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영수증에 20%의 팁을 강제 부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그 매니저에게 '그렇게 너희들 맘대로 부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고 따졌고, 그녀는 '지금 우리 서비스가 안 좋았다는 거냐, 정말 그런 거면 내지 마라!' 라며 큰소리를 냈다. 결국 난 'No!(안 좋았다.)' 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영수증에 써넣던 20%의 금액을 펜으로 그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10% 정도를 우리를 직접 서빙했던 웨이트리스에게 건넸다. (그녀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부당하게 팁을 강요 받을 때는 싸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나이바샤에서의 숙소는 컨트리 클럽(Naivasha Country Club)이었다. 암보셀리의 소파 롯지도 생각보다 좋은 숙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곳은 좀 더 고급이었다. 전체적인 정경도 그렇거니와, 방의 크기 자체는 이전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았지만, TV도 있고 유료긴 했지만 무선망(wifi)도 제공되는 곳이었다. 확실히 기온은 주위에 호수가 있어서인지 좀 더 습하면서 추웠다. 워니는 샤워 후 출다며, 잠옷 위에



청바지까지 꺼 입고서야 따뜻하다며 좋아했다. 워낙 더운 걸 싫어하는 나는 반바지만 입고 그 싸늘함을 즐겼지만.



사실 오기 전에 여행사를 통해 날씨에 대해 문의할 때에도, 이 대표가 '따뜻해

지고 있다'라고 했던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남반구니까 우리와는 계절이 다르긴 하겠지만, '엄청 더운 곳'이라고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따뜻해지고 있다'라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

는 것일까 고민됐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나니, 아프리카(케냐)의 날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백문불여일견).

7~8월이 케냐에서는 겨울이다. 이대표는 진눈깨비까지 본 적도 있다고 한다(아프리카에 눈이라니!). 그리고 9월부터 조금씩 따뜻해져서 우리의 겨울인 1~3월이 가장 덥다고 한다. 그리고 더운 그 시기더라도,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차림은 제각각 일 수 밖에 없다. 그제서야,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에게 왜 털모자가 필요한 것인지, 진실로, 정말로, 완벽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다 큰 (추위에 약한) 워니조차도 아침 일찍 움직일 때는 초록색 털모자에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다녔으니까(바지 속에 레깅스는 기본).

(잠깐 휴식을 취하는 중인 쥬 & 아프리카에서 조선 역사를 읽고 있는 워니 ↓)



<잠깐, 알아볼까?>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



국제구호개발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프리카로 보내는
털모자뜨기 캠페인
이다,
처음엔 다들 '아프
리카에 웬 털모자?!'
라고 의아해 했지만,
2007년도에 시작하
여 벌써 6년째를 맞

이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됐다.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밤낮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신생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털모자가 아기의 체온을 보존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체온을 약 2도 상승)을 하여 신생아의 사망율을 약 7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미지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www.sc.or.kr)

올해 초에 저렴한 이북리더기(iRiver Story K)를 하나 구입한 뒤로, 여행 다닐 때마다 괜찮은 책들을 넣어 다니며 읽어왔다. 배터리 걱정도 거의 할 필요 없고(1500권 저장에 한번 충전하면 6주 이상 버팀) 무게도 안 나가서(208g) 상당히 맘에 들어 하는 기계다. 이번 여행에도 버리고 별려서, 최근에는 읽지 않던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성인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구매해 왔더랬다. 심지어 떠나기 얼마 전까지도 교보문고에서 해당 책의 이북 출시가 늦어지고 있어서, 왜 출시 안되냐며 항의 메일까지 써가면서 챙겨 왔던 것이다(나도 참 쓸데없는 것에

집요하다). 드디어 그 책을 열어볼 첫 번째 여유가 이날 밤에 생겨서, 한껏 기대에 찬 채 이북리더기의 암호를 넣어 '잠금해제' 시켰다.

결과는 대 실망.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할리퀸 소설 스타일 이었다면 더 재미있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캐릭터 들과 스토리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1,2권 합본 세트를 사지 말고 1권을 먼저 사보고 2권을 살 걸, 한국에서 조금 읽어보고 재미없으면 다른 책을 좀 더 담아올 걸, 별의 별 후회가 밀려들어왔다. 예전에 읽었던 다른 책들이 담겨 있긴 했었지만, 다 자기계발서였기 때문에 소설을 읽고 싶었던 나는 허탈 할 수 밖에 없었다.

아, 다음부터 꼭 확인하고 담아와야지. 또 하나 배웠다, 인생.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미 캄캄한 밤이 된 상황에서 남자 두 명이 숙소 문 앞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니, 간 큰 나도 조금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워니가 문 쪽으로 가며 말했다.

워니: 아까 달빚이랑 산책하다가 만난 경비원들이 밤에 하마가 물로 올라오면 말해준다고 했는데, 올라왔나 봐! 줘도 보러 갈래?

그리고 보니, 낮에 돌아가면서 씻을 때 시간 차이를 두며 씻다가, 맨 마지막 차례였던 나만 방에 머물고 둘은 산책을 나갔었다. 그때 경비원들과 그런 약속을 했었다니, 조금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기회가 언제 또 있겠나 싶어 웃을 주워 입고 따라 나섰다.

전기가 귀한 나라이다 보니, 밤에도 최소한의 전등만을 사용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방을 나서자, 타일이 깔린 보도 너머의 앞마당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저기서 하마를 어떻게 본단 말인가.'란 생각이 들었지만, 수고해준 경비원들을 물리치고 다시 들어갈 자신은 없었기에 터벅터벅 따라 나섰다. 목에는 카메라까지 메고.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르자, 경비원들은 검지 손가락을 치켜 올려 입에 가져다 대며 소리를 낮추도록 우리에게 신호했다. 그리고 조금 멀리 호수와 가까운 곳의 어두운 나무 밑(15미터쯤 떨어졌으려나?)을 같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하마임에 틀림 없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척이나 덩치가 컸다! 엄청나게 큰 몸집(특히 엉덩이가 엄청 컸음)으로 아주 천천히 어둠 속에서 풀을 먹고 있는 듯 움직거리고 있었다. 카메라를 작동시켜 어두운 상태로 셔터를 눌러보았지만, LCD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어두워도 너무 어두웠던 것이다. 아닌 밤 중에 하마와의 만남은 생소하고 독특한 경험이었지만, 사실 사진도 찍을 수 없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엔 위험했기 때문에(물에 올라왔을 때가 더 사납다고 했다)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있거나 해볼 수 있는 건 없었다. 게다가 너무도 추웠기 때문에 그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경비원들은 손전등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었다. 고맙지만, 또 팁은 얼마큼 줘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으로, 우린 조용히 한국말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쥬: 그냥 넘어가긴 그렇잖아,

달빔: 밤중에 이렇게까지 챙겨준 게 고맙긴 하지,

워니: 그래도 호의로 해 준 것에 매번 돈으로 하는 것도...

쥬: 기념품 연필 줄까? '당신들의 호의는 우리의 호의로 갚는다' ,

러부리: 그래, 그래, 저들과 우린 친구가 된 거니까, 아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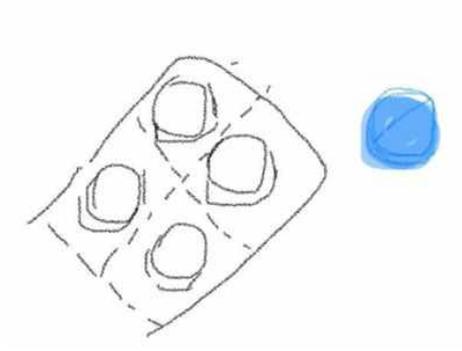
‘친구끼리는 돈으로 호의를 갚지 않는다’는 개념은, 내가 케냐로 출발하기 전 유일하게 읽은 아프리카 여행기 책인 <하쿠나 마타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아프리카 여행을 준비 중이라고 소문을 내자, 같이 일하던 동료도 친절하게도 그 책을 특별히 선물해주었다(그녀는 육아휴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잠시 들렀을 때 따로 챙겨다 주기가 지 했다. 고마워요, 효진쌤!).

숙소 앞에 다다르자, 그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워니가 연필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전해줬다. 역시 그들은 우리의 친구였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여 굉장히 좋아하며 연필세트를 가져갔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우린, 어쩌면 그들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눴다. 그래도, 그들의 친절을 그 자체로 믿기로 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니까.

달뻗이 새벽에(아마도 6시쯤?) 이상한 잠꼬대를 했다. 그것도 상당히 크고 명확한 소리로 여러 번. 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기대하시라~)

난 위통으로 새벽이 계속 괴로웠다. 원래 가끔 위가 아픈 편이긴 한데, 케냐에서는 거의 일정 내내, 특히 저녁 시간에 발병하여 새벽까지 이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 졌다가, 조금 버터 볼까 싶어 약을 거르면 여지없이 통증이 찾아왔다. 처음엔 체한 건가, 그 다음엔 시차 때문에 저녁이 부담됐나(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 먹는 거니까)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냥 ‘물갈이’였던 것 같기

도 하다. 돌아오기 2일쯤 전부터 증상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 또 3-4일 비슷하게 아팠기 때문이다.



여행 4일차(9/30)

추석. '레오파드야, 넌 어디 있는 거니?!'

케냐에서의 아침 시간이, 한국에서는 추석 날 점심을 향해가고 있을 시간이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이때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녀석은 산소에 다녀와서 쉬고 있는 중이라며 여행 잘 마치고 오라는 답문을 보내왔다.

아침 식사 전에 잠깐의 산책을 즐겼다. 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나이바샤는 좀 더 푸르러서, 아프리카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정글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이바샤에서는 특히, 조류학자로 의심되는(?) 유럽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쁜 새 종류가 많아서, 유럽인들은 특히나 새만을 보러 이곳에 오기도 한다고 누군가 말해줬다. 확실히 사파리를 돌 때도 보면, 아시아권 사람들은 모두 큰 동물에 열광하고 신기해하는데, 유럽인들은 조용히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는 부류가 꽤 보였다. 심지어 아침을 먹을 때도 망원경을 옆에 두고 빵을 씹으며 짹짹이 사방을 살펴보는 흰 머리의 노년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린 '혹시 저 사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엄청 유명한 조류학자 일지도 몰라'라며 한 쪽 테이블에 앉아서 키득거렸다.

케냐에서의 몇 차례 식사를 통해, 난 나의 새로운 기호 식품을 알아냈다. 바로 조리된 콩(Baked bean)이었다. 사실, 원래 콩 종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이런 게 무슨 맛이라고 먹나(파냐)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케냐에서는 그게 참 부드럽고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 날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돌아와서도 계속 그게 먹고 싶은 걸 보니, 확실히 내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아무튼, 이 날의 아침에도 빠뜨리지 않고 구운 콩을 기본 반찬 삼아 조식을 즐겼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지난 밤 날 궁금하게 만들었던, 달빳의 꿈(잠꼬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달빳: 꿈 속에서, 새벽에 깬는데, 워니 침대에 웬 남자가 있는 거야,

쥬: 응? 어떤 남자? 케냐인? 한국인?

달빳: 한국인이었어, 자기가 워니 남자친구라면서 우리 여행에 같이 다니려고 왔다는 거야,

일단, 워니가 그 정도로 가까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서운했는데, 여자친구들끼리만 같이 다니는 여행에 갑자기 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워니에게 말했더니, 글썄, 워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뭐 어때냐' 는 식으로 반박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막 소리를 질렀지!

워니: 아하하, 그럴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야,

쥬: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직업, 그런 것도 기억나?

달빳: 어, 마술사랬어, 벤츠 타고 왔더라,

쥬: 뭐? 마술사에 벤츠? 와, 난 그 교제 찬성일세!

달빳: 어, 넌 꿈 속에서도 지금처럼 되게 좋아했었어, ㅋㅋ.

꿈 속에서선 엄청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좋은 일이긴 하다,

달빳의 황당한 꿈 이야기로 아침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웠다. 꿈은

역시 어이없는 만큼 더 드라마틱하게 재미있다.

식사 후 게임 드라이브를 위해 다시 폴을 만났는데, 이 날은 숙소 출발부터 폴이 차 뚜껑을 올렸다. 마침 그런 모습을 찍고 싶었던 터라, 우린 사진을 요청했고, 덕분에 천진한 표정의 폴과 그의 볼록배를 여과없이 함께 촬영할 수 있었다.



숙소에서 출발 후 1시간 정도를 달려 나꾸루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이곳도 정글 스타일에 평야가 잘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다. 부모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단 생각이 계속 나서, 머리 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으나, 가장 번거로운 게 황열병 주사였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출발 적어도 10여일 전에 전국에서 딱 2군데 있는 검역원에서 주사를 맞으시려면 주사만 맞기 위해 그 먼 길을 한번 왔다 가고, 출국 때 다시 인천까지 와야 한다는 애긴데, 번거로운 일 딱 싫어하시는 두 분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여행을 가려면 정말 번거롭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대한항공이 아프리카 직항을 더 잘 팔기 위해서는 황열병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이곳에서도 얼룩말, 가젤, 일란드(Eland) 등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코뿔소를 굉장히 가깝게 볼 수 있었던 게 이곳에서 건진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이 녀석도 아프리카 여행의 빅파이브(Big 5) 동물 중 하나라서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우리 차 바로 뒤로 길을 건너는 코뿔소 & 달빛의 뒤통수)





(↑가젤? 일란드? 임팔라? =_=;

↓은근 귀여운 버팔로들)



<잠깐, 알아볼까?> 빅파이브

사파리 게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냥하기 어려운 5가지 동물을 말한다고 하는데, 사자, 코끼리, 버팔로, 표범, 코뿔소를 말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크기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포유 동물이라는 점!



(나쿠루 호수의 홍학 떼, 홍학들이 떠난 때라 광고의 장면은 없었다. ↓)



(📹 버팔로에게 작은 새들이 근처를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먹기 위해 많이 붙어있다, 느린 동작으로 귀찮은 새들을 쫓아내려는 우직한 동물의 행동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였다.)

(↓이번 여행에서 맘에 드는 베스트 사진 중 하나,
워터벅 수컷의 은근한 매력, 아름답다!)



오늘의 점심은 공원 내의 폭포(☞Makalia Falls) 근처에서의 피크닉 식사였다.

(↓점프샷인데 이모냥!)



폭포 앞에서 또 한번의 점프샷을 찍고는 호텔에서 풀이 아침에 챙겨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 이동했다. 우린 근처의 나무 밑으로 풀이 항상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담요 자리를 펴는데, 이 담요는 평상시엔 트렁크에 넣



는 손님들의 캐리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덮어 놓는 용도였다.



(여기서 자리로 사용되기 이전까지는 굳이 저렇게까지 캐리어를 싸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나 생각했었는데, 2중으로 사용되는 용도라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다.)

피크닉 박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풍성(샌드위치, 닭다리, 오렌지, 사과, 주스, 물, 요거트, 쿠키)했다. 정말 관광객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풀이 자신의 도시락은 운전석에 놓고 따로 먹으려고 하기에 우리와 같이 앉아서 먹자고 불렀다. 우리에게 대한 배려(손님과는 겸상하지 않는다?)인지 자신의 편의인지(사실, 나 같아도 혼자 먹는 게 안 체할 듯;) 모르겠지만, 이 전에도 이 후에도, 풀은 우리와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편이었다(피했다.). 그래도 이 때만큼은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피크닉 나온 듯 자리에 반쯤 누워서 닭다리를 뜯는 모습이 참 귀여웠다. 이때 우리 서로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폴은 38살이라고 했다. 우린 생각보다 많은 그의 나이에 깜짝 놀랐고 그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서 조금 놀란 것 같았다. 나이에 비해 자녀는 4살짜리 딸과 1살짜리 아들로 어린 편이었다. 마사이족이지만 어릴 때 나이로비로 나와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에서 관광을 공부해서 가이드가 되었다고 했다(그는 상당히 진취적인 편인 것 같았다. 마사이족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게으른 삶이라고 우리에게-약간 그것을 경멸하듯-이야기했다.). 난 계속 폴의 원래 이름(마사이식 이름)이 궁금했지만 물어볼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마침 달뻗이 폴에게 그것을 물어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이래서 우린 친구!)

폴: '까사이네' 예요,

쥬: 무슨 의미인데요?

폴: Happy Man이란 뜻이죠,

우리 셋은 폴의 설명이 끝나자 마자,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며 환호했다. 까사이네(영문 스펠링은 끝내 못 받아 적어왔다;)도 함박 웃음을 지었다. 항상 웃으며 손님을 대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쿠나 마타타'(실제 많은 케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다!)를 입에서 자동으로 재생하던 그에게 더 잘 어울릴 이름은 없을 것 같았다.

쥬: 우리한테도 지어줘요, 마사이식 이름,

폴: 아, 정말요? 그럼 좀 생각해볼게요,

그러나. 여행 중간 중간 내가 '우리 마사이식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냐?’고 계속 챙겼지만, ‘생각 중이다’라는 것을 끝으로, 끝내 우리의 마사이식 이름을 그에게서 받아내진 못했다. (뭔가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마사이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 금기시하는 듯한 느낌은 나의 단순한 오해일까? -_-)

(하지만 일단은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



나쿠루 국립공원에선 볼 수 있을 거라던 레오파드(Leopard: 표범. 사실 돌아와서 찾아보기 전에는 ‘레오파드=표범’인 것을 연결 짓지 못하였다. 사람의 두뇌란;;), 결국 실제로 보는 것은 실패했다. 우린 상당히 아쉬워하며 나쿠루를 떠났는데, 설상가상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말 이지 엄청 더웠다. 역시 아프리카라 햇빛이 강할 땐 정말 강했는데,

그럼에도 차가 달릴 때 나는 먼지의 양이 너무 많아서 창문을 열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이 날의 더위는 상당히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해서 차 밖으로 나오자, 차 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한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에어컨이라도 틀어놓은 것처럼. 이걸 중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단 말인가 ...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지내기 좀 더 수월해질 텐데.



(나쿠루 국립공원 와이드 샷, 중간 중간에 검은 덩어리는 바로 원숭이들!
시원스럽고 평화로운 낙원-그게 나쿠루 국립공원에 대한 인상이다.)



++깜짝 팁! 케냐의 화폐 단위는 실링

[실링]이라고 발음하면 못 알아듣는다, 약하게 [실링]이라고 해야한다. 처음에 우리 돈과 비교하는 환율 계산이 좀 힘들어서 둘째 날 정도까지도 상당히 환산하기가 어려웠는데, 결국 이날쯤 되어서는 너무 답답하다 싶어서, 수첩에 산수로 계산식을 만들어 냈다.

$\$100=8,000\text{Ks}\text{ŵ}$ \Rightarrow $\$1=80\text{Ks}\text{ŵ}$ \Rightarrow $\backslash 1,200=80\text{Ks}\text{ŵ}$ \Rightarrow $100\text{Ks}\text{ŵ}=\backslash 1,500$ (대충 반올림)



(숙소의 앞 뜰, 초록빛의 넓은 정경이 마음을 참 차분하게 만들어 줬던 그 곳.)

(책 읽는 척 포즈도 잡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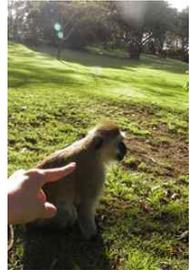


들어와서 씻고, 드디어 오늘은 나도 수영장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암보셀리 롯지에서의 수영장보다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잡기 위해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아야 했기에 달뻗과 수영장으로 향했다. 헌데, 수영장 물이 너무도 차가웠다. 모두들, 아프리카에서의 수영은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기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햇빛만 강하고) 물의 온도는 높아지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지난 롯지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도 수영장을 찾은 손님은 우리뿐이었다. 일단 수영복까지 갈아입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서 물 속에 들어갔지만, 정말이지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고(그래도 달뻗은 열심히 수영했다. 애는 정말 수영을 좋아하나 보다;) 나는 원래 '수영'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물에 떠다니길 좋아하는 인간(배영처럼 그냥 누워서 하늘보고 시체놀이)인지라, 머리를 담글 수 없을 만큼 추운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물놀이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 덜 춥다며 달뻗이 수영장 레이스를 하자고 제안 하였는데, 아, 정말 내 친구 달뻗은 어찌나 승부욕이 강한지(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지인 여자 중에서 승부욕 강한 순으로 1,2위); 정말 미친 듯이 좌우 살피지도 않고 물장구를 뿌리며 내 라인(실제로 있진 않았지만)까지 사선으로 돌진하여, 결국 경기는 중단되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면박을 줌)

사실 난 수영장에서 물장구 크게 치는 사람을 꽤 싫어한다. (물 튀길 때 거기에 맞는 느낌이 싫다. 눈에 들어갈 듯한 느낌도 싫어하고 -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서리 증후군 때문인 듯.) 어쨌든 너무 추워서 몇 번 침병대는 것을 끝으로 수영장을 떠났다.

방에서 씻은 후에 숙소를 구경하러 나갔더니 워니가 혼자 산책을 다니고 있었다. 함께 이곳 저곳에서 구경하고 해먹에 누워서 휴양지

놀이 사진도 찍고 숙소 근처까지 올라와서 싸우고 있던 원숭이들에게 접근해보기도 했다. (이것들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지네들끼리 싸우는 데 정신이 없었다.)



워니는 더 거닐겠다고 하여, 나 혼자 먼저 숙소로 돌아와서 방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휴양지 놀이를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홍차 한 잔을 타서 여유를 부리며 이북 읽기. 하지만 역시나 <그레이...>가 너무 재미없어서 책을 계속 읽을 수가 없었다. 자연스레 눈을 들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다. 책이 더 재미있는 게 나왔을까, 지금처럼 재미없는 책 덕분에 여유롭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걸까 라는 별 의미 없는 고민이 들었다. 선택의 여지 없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연을 즐기는 게 더 현명한 자세니까. 하지만 홍차가 너무 독해서 잠시 흐름을 끊고 커피로 바꿔 왔다. 점점

하늘이 석양 빛에 물 들어가면서 맛있는 커피와 함께 나의 휴양지 놀이는 절정에 이르렀고, 이대로 시간이 정지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었다. 그러나 나에겐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므로,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정말 아프리카(케냐)는, 더 개발이 되기 전에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관광지에 한정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한 것은 물론, 자연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만나는 사람들은 순박하다. 잘해주는 만큼 뭔가 기대(요구)한다는 게 있어 불편하다고들 말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기엔 그 정도가 크게 과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고, 안 준다고 해서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럽여행 때는,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웬 거지 아저씨의 구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니 마구 욕을 하고 간 적도 있다.) 러부리는 케냐와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조금 이르게(8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침대에 누웠는데, 또 위통이 찾아왔다(정말 맛있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니가 얼마 전 위가 아파서 한참을 고생했었는데, 양배추를 삶아서 그 물을 마시고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나도 돌아가서 (매우, 몹시 귀찮지만) 꼭 양배추를 달여 먹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돌아와서 좀 먹었는데, 차게 해서 먹으니 소문보다는 먹을 만 했다. 하지만 귀차니즘으로 이해 오래 먹진 못하고 옷액으로 갈아탔다)

건강을 개선하기로 다짐은 했지만, 아직은 나의 몸이 케냐에 있었다. 그래서 간밤에 열과 식은 땀으로 2번 정도 이불을 걷어야 했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워니와 달뻗은 추웠던대). 아픈 배를 움켜쥐고, 여

행을 위해서라도 돌아가면 꼭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 되었게요? ...=_=)

<케냐에는 이런 일이>

1. 지역과 지역의 이동에 상당히 시간을 들여야 하는 케냐에서
의 여행은, 그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의 횡단 여행과 비슷할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특이하게도 사람이 절대 없을 것 같
은 도로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하나 둘 정도 나타
난다는 것이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딱히 어떤
교통수단도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보였다.
2. 케냐의 도심을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의 막히는 도로에서 뺨
튀기 같은 주전부리를 파는 것처럼 뭔가 팔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헌데 이건 무슨 '다이소' 를 거리로 내온 것 같은
모양새인데, 단순하게는 신문에서부터 구운 옥수수, 음료수,
심지어 락앤락 같은 용기를 사이즈별로 10개쯤 묶어서 들고
다니는 것까지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다채롭다. 도심의 교통
정체(그리 길지도 않은) 시기에 팔기 때문에, 누군가 물건을
사기로 결정했어도 교통이 뚫리면 차들은 그냥 달려 나가버
린다. 그러면 물건을 넘기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판매상들
은 그 차와 함께 달린다. 이건 아주 위험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다.

(어느 기념품샵 뒤편에서는 장인들이 목각작품들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것도 대량생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규모로 직접 작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다니!)



여행 5일차(10/1)

드디어 캠프 사이트! 근데 이게 텐트 맞아?!

오늘과 내일은 이틀 동안 캠프 사이트에서 지내기로 한 날이었다(사실, 처음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했을 땐 전체 일정을 캠프로 생각했었으나, 나이를 생각하라는 외부의 권유와 내부의 암묵적 합의로 2일 정도만 넣었다). 문득, 여행의 인증샷 용으로 가져 온 스마일맨을 계속 깜빡 빼놓고 찍는 경우가 빈번하여, 결국 전체 사진에서 10장 미만에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꼭 챙겨 찍어야지...(불끈!)



아침식사 후 짐을 챙겨 마사이마라(Massai Mara)로 출발했다. 마사이마라로 오는 길은 정말로 '오프로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간 경험했던 '조금 울퉁불퉁한 길'은 '양반들 가마 타는 길' 정도랄까. 게다가 시간도 그간의 이동시간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중간에 개울을 지나는 다리가 끊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다행인지 불행인지, 물이 없어서 끊긴 다리 옆으로 누군가 먼저 지나가면서 다쳐진 길로 이동), 어찌나 굴곡이 심한지, 차 안에 앉아있었지만 거의 자동으로 춤을 추는 기계를 탄 느낌이었다. (그래서 난 'Dancing Road'라고 이름 붙였다.)

캠프 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벌룬 투어 예약을 위해 에이전시에 들렀다. 3-4살 되어 보이는 꼬마 애가 있어서 드디어 처음으로 준비해 온 연필을 한 자루 건넸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걸 잘근잘근 씹어 먹고 있었다(뽀족하게 깎인 연필이었는데!). 애들에게 주기엔 너무 위험한 물건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미 다시 빼앗기엔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입에 넣고 있던 상태라, 날카로운 연필심이 사라진게 다행이겠거니 하고 두었다. (독성은 없기를;;)



(연필 씹는 꼬마와 워니 ↑)

케냐에서 숙소나 벌룬(열기구) 에이전시 등에서 타 지역과 조금 다른 게 있다고 느낀 건, 이들이 관광객들에게 뭔가를 설명해줄 때 굉장히 차분하지만 상당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스와힐리어로 말할 땐 자신감 있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언어(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인지(어차피 우리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작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뜩이나 잘 안 들리는 외국어를 30% 정도는 날려먹고 듣게 되었다. 하지만 '하

쿠나 마타타!', 이 날쯤 되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준이 되었다. (이건 아마도 함께 움직이는 일정이 3명이 되니 더 그랬던 것 같다. 2명이 다닐 땐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는데, 3명이 되니 적어도 한 명쯤은 제대로 알아듣거나, 3명이 알아들은 걸 합치면 부분적인 정보가 종합되어 90% 이상의 '완전 정보'에 가까워지니 말이다.)

(↑상당히 점잖은 어조로 우리에게 설명해준 별론 예약 에이전트, 하지만 말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별론 투어 예약을 마치고 차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하자, 우리가 머물 캠프 사이트(Nchro wildlife camp site)가 한 초등학교 맞은 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나름 리셉션↓)





(우리 텐트↑, 각 텐트를 부르는 이름들이 시멘트 턱에 쓰여 있었다. 다른 곳들은 대부분 행성-Mars, Mercury 등-이름이었는데 우리 텐트는 Aberare. 찾아보니 케냐의 지역 이름 중에 하나다.)

캠ป์ 사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이 있었는데(텐트에서 안 자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마지막 기억은 중3 때인가 학생임원 캠ป์ 정도였는데 그때도 자리가 불편해서 잘 못 잤던 기억이 있었다), 도착하여 마주한 캠ป์장은 웬걸, 케냐의 다른 곳이 그렇듯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세상에, 텐트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있다니. 심지어 침대도! (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찍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 아쉽!)

(↓ 왼쪽이 샤워실, 가운데가 세면대, 우측이 화장실)



따라서 조금 불편한 것이라고 해 봤자, 전기는 발전기를 돌리는 시간에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아침 시간 -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다 - 과 저녁시간 - 6 시 반부터 10 시 - 에 전등이 켜지고, 자신의 전자기기는 식당에 있는 콘센트를 통해 그 시간에 충전을 하거나 사용하는 게 가능). 기본 휴지와 세수비누도 제공이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구하기 힘든 비누를 2-3 개 준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빨래비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캠프 사이트에 머무를 여행객은 작은 세수 비누나 물비누를 챙기길 권한다.) 물은 '까사이네'가 차에 두었던 것을 몇 개 챙겨와서 먹었다.



(↑식당에 들어서는 나의 뒷모습, 캠프 사이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지브라 무늬의 하의, 하지만 그 분위기는 나지 않고 다리만 엄청 짧아 보이는 구나…;)

식사 시간을 미리 말해주긴 했지만, 식당에서 준비가 완료되면 직원이 텐트마다 돌아다니며 와서 먹으라고 말해주었다.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간혹 30분쯤 늦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고 보니, 아마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다. 캠프에서의 첫 점심식사도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부르러 왔다.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빼먹지 않는다. 그래서 별로 화도 안 났다.)



(식사를 준비 중인 캠프 식당 직원들, 맨 우측이 셰프, ↑)

난 사실 우리나라 식 캠프에서의 식사 정도를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왜, 그, 식판에 주는 스타일말이다), 막상 식사를 할 땐 적잖이 놀랐다. 음식 양이나 종류는 적지만 나름 뷔페처럼 상을 차리고, 각 텐트

별 식탁(실제로 매번 우리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의자도 딱 3개만 있는 식탁으로)에도 접시와 포크가 정갈하게 놓여있었다. 게다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웨프인 '케네디(Kennedy)'가 나와서 각 텐트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신의 소개를 하며 인사까지 했다. 사용하는 영어의 억양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자신의 음식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관심을 가진 멋진 사람이었다. (매 식사 때마다 언제나 사람들이 뭘 맛있게 먹는지 꼭 체크하고 관찰했다.)



음식은 보기엔 조촐했지만 맛만은 정말 뛰어났다. 러부리는 앞서 머물렀던 화려한 곳들의 음식보다, 실제적인 맛으로는 이곳이 최고라고까지 생각했다. 이날 점심으로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 분명히 모양은 팬케이크인데, 그 맛은 우리의 '참쌀부깨미' 맛이 나던 음식이 내겐 가장 맛있었다.

오후 게임 드라이브를 가기 전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텐트 앞에 의자를 나란히 두고 앉아서 각자 책을 읽으며 신선놀이를 했다. 햇빛이 맑으니 정신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차분한 행복이 몰려왔다. 아직 인생을 논하기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이제는 인생을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진다.

4시쯤,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게임드라이브를 위해 까사이네를 만나 길을 나섰다.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입구 앞에서는 마사이족 여성들

이 기념품을 팔기 위해 자리를 펼치고 있었고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우리 차에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렸다. 그들에게 직접 구매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언제나 그렇듯, 흥정을 시작했다가는 사고 싶지 않아도 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임이 두려워 시도해보지 못했다.



(↑ 삼삼오오 모여서 손님을 기다리며 물건을 만드는 여인네들)

확실히 마사이마라는 다른 곳들보다 훨씬 넓었다. 세렝게티와 맞닿아 있는 그 곳은 초원이 정말 아름답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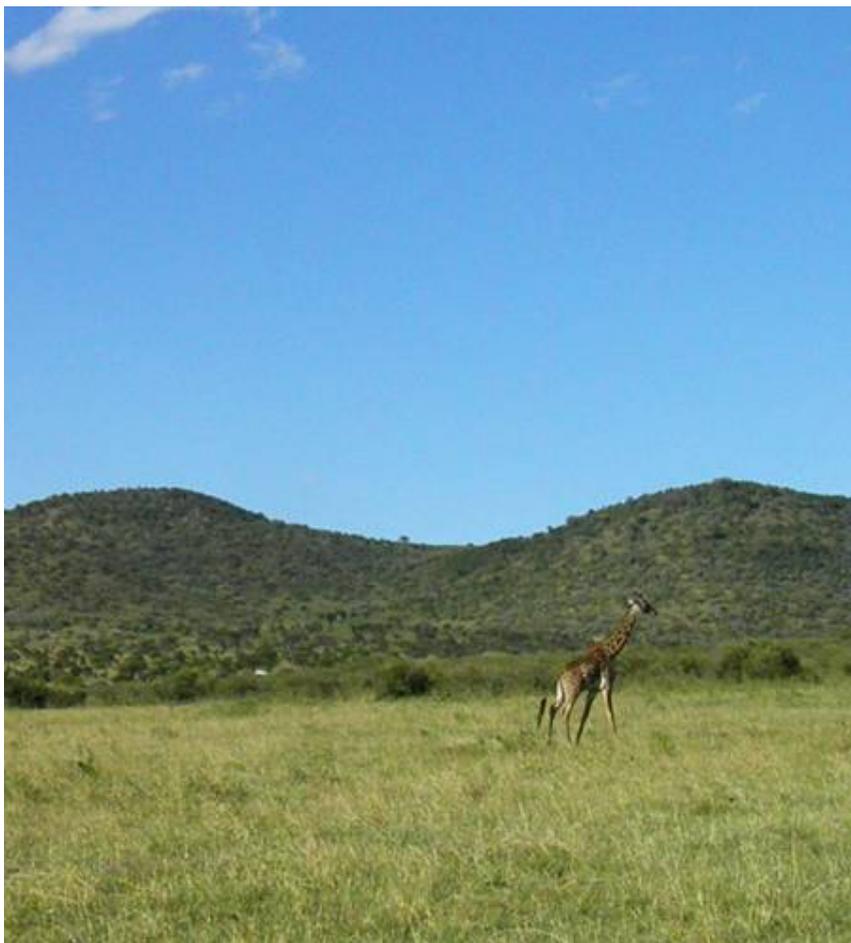


쥬: 까사이네, 세렝게티에도 가봤어요?

까사이네: 물론 가봤죠.

쥬: (오호라!) 그럼, 마사이마라가 더 좋아요, 세렝게티가 더 좋아요?

까사이네: 두 곳 다 좋아요, 비슷한데, 세렝게티가 훨씬 더 크죠.



<잠깐, 알아볼까?> 마사이다라 vs 세렝게티

마사이다라(Masai Mara): 마사이다라 국립 자연보호구역을 이야기하며, 면적은 1,510km², 1974년에 국립보호구로 지정되었다. 빅토리아호(湖)와 그레이트리프트밸리 사이에 위치한 드넓은 보호구역, 탄자니아에 위치한 세렝게티 국립공원(Serengeti National Park)의 수렵금지구역 북쪽과 이어져 있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온 마사이족(族)과 마사이강(江)에서

이름이 유래한다.

세렝게티(Serengeti): 탄자니아 세렝게티 평원에 있는 국립공원을 지칭하며, 면적은 1만 4,763km²이다. 킬리만자로산(5,895m) 서쪽, 사바나지대의 중심에 있는 탄자니아 최대의 국립공원. 세계 최대의 평원 수렵지역을 중심으로 사자 · 코끼리 · 들소 · 사바나얼룩말 · 검은꼬리누 등 약 300만 마리의 대형 포유류가 살고 있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마사이마라에서는 이전에는 못 봤던 하트비스트(heart beast)가 있었다. 와일드비스트와 비슷한 종류지만 뿔의 형태가 하트 모양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리라. 그리고 TV에서만 보던(어느 동물이든 그렇지 않을쏘냐;) 귀여운 몽구스(mongoose)도 볼 수 있었다. 이



녀석들은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었지만, 워낙 빠르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서(덩치가 작다 보니 인간이 무서운 건지), 근처에서는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오후에 게임 드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 햇빛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다. (날도 덥게 느껴지기까지. 정녕 아프리카다웠다.)

그 동안 사자를 못 봤었기 때문에 마사이마라에서는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평화로운 광경만 펼쳐질 뿐, 우리가 이곳을 목적지로 잡으면서 기대했던 '사냥하는 육식동물'(우린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인가;)은 털끝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암보셀리에서도 그냥 배회하는 치타만 저 멀리서 조금 봤을 뿐이니까.) 까사이네가 계속 이리 저리 차를 몰고 다녔지만, 사자 '꼬랑지'도 보이지 않아 러부리들은 슬픔과 아쉬움에 젖어 있었다. 충직한(?) 까사이네는 무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뭔가 명확한 낱새를 보이고 있진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어느 언덕으로 차를 빠르게 몰더니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올라가면서도 별 다른 말 없이 그냥 "우린 거의 날아가듯이 간다"며 몇 마디 했지만, 왜 그러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언덕 위를 계속 올라가길래, 난 그저 높은 언덕에서 전체적인 정경을 보여주며 오늘의 게임 드라이브를 마치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쯤에 다다랐는데, 이상하게도 2-3대의 차가 작은 나무 주변에 둘러 서 있었다. 우리 차도 그 나무 근처로 다가갔는데, 세상에, 암사자 한 마리가 차분히 앉아서 근처의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저 멀리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난 드디어 사자를 봤다는 기쁨에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어머나, 암사자 옆에는 새끼 사자까지 한 마리 있지 않은가!?



우린 순식간에 흥분하기 시작했고 아기 사자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경탄하며 좋은 포즈를 잡아내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다. (역시 모든 아기는 사랑스럽다 - 안 울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정말로 사자까지 보게 되다니! 표범을 제외하곤 빅5를 다 봤다는 생각에 우린 정말 운이 좋다며 즐거워하며 마사이마라에서의 게임 드



라이브를 마쳤다.

좋아하는 우리를 보곤 까사이네가 말했다.

까사이네: 당신들은 정말 운이 좋아요!

러부리: 맞아요, 우린 운이 정말 좋은데, 그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다함께: 아하하하하~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을 떠났다.



(해가 저물어가자 기린 가족을 넉찍이 줄지어 집으로...?)





캠프로 돌아와서 씻고 조금 지나자, 저녁식사를 위해 또 직원이 부르러 왔다. 식당에서는 쉐프 케네디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음식을 대접했고, 우리 또한 정말 만족스럽게 먹고 즐겼다. 웨이터 아저씨가 음료수를 권하기에 스프라이트(sprite)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난 꼭 외국에 나가면 탄산음료가 당긴다), 아저씨는 농담조로 세명에게 한 병은 너무 적다고 놀렸지만, 우린 곳곳하게 한 병을 먼저 마신 후 필요하면 더 시키겠다고 했다. (사실, 가격도 얼마인지 몰라서 함부로 시킬 순 없었다. 지난 롯지에서 데인 적이 있으니.) 음료병은 상당히 작은 사이즈였는데(200미리 정도 될까), 심지어 미지근하기까지 했



다.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우리는, 어찌 보면 미지근하게 당연할 텐데 - 정해진 시간에만 발전기를 돌리는 곳에서 냉장고에 넣어진 시원한 음료를 바라다니 -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 달빳은 그런 음료의 상태에 질색했지만, 나는야 '설탕물에 국수도 말아먹는 인간'인지라 랄랄라 마셨다는.

사실 나는 캠프 사이트에서의 여정을 나름 기대하며 준비했었는데 (어느 책에선 밤중이나 새벽에 야생동물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자연적이고 멋질까 기대했었다. 하지만 여기선 야생동물 소리는 없고 바람 소리만 엄청나게 들었다); 그 중 하나는 텐트에서 듣기 위해 <라이온킹>의 OST를 아이폰에 넣어 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내는 이 때가 최적기라 생각하고 Hans Zimmer의 공연실황 음반(<Wings of Film>)에서 담아 온 <Lea Halalela>와 <Busa>를 틀었다(해당 음반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2곡). 하지만 막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노래들의 '아프리카적 느낌'이 현장에서는 제 몫을 해내지 못하고 어색하기만 했다(나중에 우리 부장님과 이와 관

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음악도 현지에서 들을 때의 느낌과, 그 CD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한국에서 들을 때의 느낌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한다. 문화를 즐기는 환경의 차이, 그게 가져오는 감성의 반응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실망과 함께 Karen Ann의 곡으로 재생목록을 바꾸고 조금 감상하려는 순간, 갑자기 나의 폰이 맛이 가버렸다. 아이폰 3G모델을 3년째 사용해보면서 생전 처음 본 화면이 나타나더니, 홈 버튼을 눌러도 이상한 옵션 버튼들만 나오고, 통신사도 안 잡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집이나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 올 수도 있는데(동행한 친구들의 폰 번호를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음;) 이 전화기 외에는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도 안 열어뒀다고 생각하니, 속이 급 답답해졌다. 다음부터는 연결되는 번호를 하나쯤은 넘겨놓고 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어느 공모전에 응모해놓고 온 게 있어서, 또 과한 기대로, 그것도 연락을 못 받아서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사실은 이런 일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갑자기 아이폰이 맛이 갔던 것의 원인은, 결국 귀국한 날 새벽에 2시간 가량 아이튠즈를 통해 폰을 복원하면서 알게 되었다. 괜시리 iOS5의 베타 버전을 개발자 등록까지 해가면서 업데이트 받았던 것이, 10월 1일자로 버전 사용일자가 만료되어버려서 발생한 문제였던 거다. (그것도 3GS 사용자가 'Siri' 사용해보겠다고 베타 버전을 깔았다는 슬픈 진실...)

*공모전도 탈락한 것 같다는 슬픈 현실도. (롯데*시네마 극본공모 공지만 있지 당선작 광고가 없다고!!)

드디어 정식으로 첫 텐트 나이트(night)를 맞았다. 우리가 그 동안 고대했던 '별 보기'를 하러 밖으로 나가 의자에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역시 별이 많긴 했는데, 기대보다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카메라로도 찍어보려 했지만, LCD에는 까만 화면만 남아서 결국 포기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냥 눈에 담기로 결정하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최대한 꺾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이 차가운 공기만큼 깨끗한 느낌이었다. 워니의 쪽 뺨은 사진을 찍는 것을 끝으로, 우린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6시 30분부터 10시까지만 전등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자기 전에 전등을 끄기 위해서는 침대의 케노피를 젖히고 약 1미터 거리에 있는 스위치까지 가야 했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침대에 들어오는 게 난관이라는 것이었다. (도심에서 밤에 불을 끄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정말 눈에는 보이는 게 전혀 없었다.) 게다가 중간에 불을 한번 끄고 누워봤지만, 너무 깜깜하니 오히려 잠에 빠져들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우리는 전기가 끊겨서 자동으로 전등이

꺼질 때까지 그냥 두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첫 번째 캠프 사이트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

여행 6일차(10/2)

'오기다리 고기다리 던' 벌룬 투어!

"사자가 있으니, 절대 내리지 마!"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벌룬 투어의 날이 밝았다. 4시 반까지 우리가 머무는 캠프로 진행 가이드가 데리러 오기로 했기 때문에 4시에 기상해서 눈곱만 떴 채 옷을 꺼 입고(난 너무 얇은 옷들만 가져온 상태라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위 아래 2개씩 겹쳐 입고 스카프도 두르니, 생각보다 춥진 않았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론 파카나 가죽옷을 입을 정도이니, 따뜻한 옷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다) 리셉션 건물(이라고 하기엔 작은 버섯돌이 집 같지만) 앞으로 나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여전히 캄캄해서 오로지 워니와 달빳의 휴대폰 플래쉬에 의존해서 걸음을 떼야 했다. (기억하겠지만, 전날 나의 폰은 맛이 갔기 때문에 들고 나갈 수 없었다.)

부지런한 우리가 4시 20분에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우릴 맡은 가이드는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우리 담당이 아니라 먼저 출발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착각했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 역시나 이곳 캠프에서 벌룬을 가는 손님은 우리 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을 '조너선'이라고 밝히면서, 같이 가는 팀이 하나 더 있는데, 그들은 조금 떨어진 롯지에 머무르고 있어서 거길 둘러서 가게 된다고 알려줬다.

쥬: 근데, 우리가 자기 손님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름도 확인 안 했잖아.

워니: '동양인 여자 3명' , 이 정도면 그냥 알지.

생각해보니, 우리와 같은 조합을 여행 중에 한번도 보지 못했다. 서양인들은 오히려 혼자 다니거나, 커플 아니면 아예 가족이었다. (그래서인지 케냐인 몇몇은 우리들이 자매인지 묻곤 했다.) 아, 우리가 상당히 (존재만으로도) 튀는 여행객들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 조너선의 차 안, 까사이네의 차보다 좀 더 견고하고 고급스러웠다.)

약 30여 분의 오프로드를 (새벽부터) 달려서 꽤 좋아 보이는 롯지에 도착했다. 조너선이 전화를 좀 하더니, 아직 이쪽 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며 이곳의 식당에서 커피와 간식을 먹으면서 잠깐 기다리자고 했다. 우린 당연 오케이. 달벳과 워니는 그곳에 있는 쿠키도 맛있다고 즐겼으나, 난 원래부터 아침은 잘 안 먹는 인간인지라 가볍게 (향 좋은) 케냐 커피로 시작과 마무리를 마쳤다.

헌데 커피와 쿠키를 다 먹었는데도 그 분들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다보고(화장실 쓰레기통에 '신라면' 미니컵 포장기 버려져 있었



는데, 타국에선 이런 것까지도 꽤 반가웠다), 썬크림도 바르면서 이른 아침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고 나오자, 일본인 노부부가 차에 오르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하다면서 말씀하시는데, 두 분이 알람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건지, 우리가 도착하고서야 급하게 일어나서 나오셨을 것으로 추측 가능했다(할머니 머리 스타일이 안습..; 할아버진 그냥 모자를 눌러쓰셔서 깔끔하게 정리되었었는데). 일본에서 오셨냐며 일본어 조금 할 줄 안다고 아는 체를 해드리자, 할아버진 “안녕하시무니다”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한국어라며 화답하셨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시는데 아프리카로 두 분이 여행을 오시다니, 그 모습이 참 도전적이고 좋아 보였다. (사실 이분들에게는 전용 가이드가 따로 한 명 더 붙었다. 조너선의 옆자리에 타길래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그림자처럼 부부를 챙기더라는.)

이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분들은 연세가 75쯤 되신 호호 할아버지/할머니 부부였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좀 하시고, 할머니는 중국어가 유창하셔서(어릴 때 중국에서 자랐다고 함), 달빳이 두 분은 세계 어디든 여행하실 수 있겠다고 부러워했다.



룻지에서 출발은 하였으나, 별룬을 탈 수 있는 곳까지 가는 데에 또 한참이 걸렸다. 해가 뜨지 않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난 오프로드를 길도 헤매지 않고 능숙하게 운전하는 조너선이 신기했다. 그는 간혹 길가에 독특한 동물들이 나타나면 알려주기도 했다. 8시를 조금 앞 둔 시간, 드디어 우린 별룬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 곳에 도착했다. 누워서 바람 배를 채우고 있는 별룬 위로, 초롱한 달이 보였다.



손님의 수만큼 그들을 안내하고 정리하는 별룬 투어 에이전시의 직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름을 확인하고 사람 수에 맞춰서 별룬 배정을 했다. 하나 당 16명이 정원이었고, 한 에이전시에서만도 5개가 넘는 별룬이 뒀다. 우린 가장 끝 쪽에 있는 주황색 별룬에 배정 되었고 기장은 미국인 할아버지 데이비드(👉 David Weston)였다.





별론을 타는 방법은 그간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다. 난 별론이 공기를 품고 반듯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타는 바구니(?)에 옆문이 달려서 그걸 열고 들어가 탄다고 생각했었는데(어디선가 그런 장면을 본 듯), 실제로 여기서 경험해보니, 처음에 별론을 눕혀놓고 열기와 바람으로 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 어느 정도 바람이 차면 누워있는 별론의 각 칸(승객용 4 칸, 기장용 가운데 1 칸이 있음)에 4 명씩 승객이 들어가서 누운 채로 대기를 시킨다.



우리의 주황색 배색 별론은 러부리 한 칸, 중국여행객들 1.5칸, 호주 어르신들 1칸, 일본인 노부부 0.5칸을 차지하며 채워졌다. 중국 사람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기장 할아버지가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던지("Stay seated!!"-완전 목청

크심) 바로 옆에 서 있던 나는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총 비행 시간은 1시간이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날 바람이 별로 안 좋은 편이었는지 타는 중간에 자꾸 별론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서 기장 할아버지가 좀 고생하셨다. 같은 서양인이라고 호주 어르신들과 담소를 많이 나누시다가, 나에게 딱 한 마디 물으셨는데

(“숙소가 어디야?”), 난 그때까지 우리 캠프 사이트의 이름을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사실 이름을 보긴 봤으나,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 몰랐다; 모음이 이어지지 않는 N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니). 결국 기장 할아버지는 내가 영어를 거의 못한다고 판단했는지 그 뒤로는 묻지 않으셨다(다행인지, 불행인지...).



(대한항공 CF에서처럼 가득하게 벌룬이 뜨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부정할 순 없다.)

천천히 유명하듯 하늘을 나는 벌룬에서 내려다보는 마사이마라의 모습은, 사실 기대만큼 대단해보이진 않았다. 너무 아침 일찍이라서인지 동물들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TV CF에서 보던 '누 떼'의 이동이라든가, 생존을 위한 사자의 처절한 사냥 모습 따위는, 망원경 10개가 있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도 그나마 <동물의 왕국> 분위기가 났던 장면은, 하이에나 4-5마리가 아침 사냥으로 한 끼를 때웠는지, 턱 주변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기장 할아버지가 말해주어서 알았는데(이 분은 벌룬을 조정하는 와중에도 시시때때로 망원경으로 이곳 저곳 살피며 볼 거리를 알려주셨다. 달뻗은 그의 망원경을 보기 전에 알려주는 목소리만 듣곤, 눈이 엄청 좋은 분

인 줄 알았다고 한다.), 거리가 좀 멀어서 다른 친구들은 자세히 못 보고, 나만 카메라를 줌으로 당겨서 볼 수 있었다. 이



곳에선 특히나 30배 광학 줌이 참으로 뿌듯한 기능이였다.



(↑위니와 달빔의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사진을 찍든지 벌룬을 탄 느낌이 하나도 나지 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반면 난 위치가 좋아서... Girls, I'm sorry!)



(☞ 착시 사진 찍기는 여행의 깨알 같은 재미)



바람이 계속 안 좋아서 맘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기장 아저씨는 짜증을 냈다(사실 이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가늠이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원래 좀 불 같은 성격임에 틀림없다). 별론이 움직이는 동안, 같은 회사의 트럭들이 도착 예정지를 향해 달려가며 우리에게 간혹 손을 흔들어줬다. 별론 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마사야마라 한 복판에서 길다란 탁자를 셋팅하고 샴페인과 함께 아침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대한항공 CF에서는 그 장면이 좀 더 과장되어 나온다.)

우리 별론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자, 기장 할아버지는 착륙을 준비해야겠다며, 만약 자신이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면 즉시 앉아서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탈 때도 좀 희한하게 탔는데, 내릴 땐 또 어떤 방식으로 내릴까 궁금해 하던 찰나, 하필 우리가 착륙하려고 하는 지점에 웬 차가 서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보였다. 그대로 별론이 진행하게 되면 차와 부딪힐 게 뻔해 보였다. 기장 할아버지는 팔까지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비켜! 비키라고! 우리 앞에서 비켜!

과연 그 목소리가 10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을까 걱정되는 와중에, 별론은 점점 더 땅에 가까워졌다. 기장 할아버지가 모두 당장 앉으라고 소리쳤다. 일사불란하게 모두 자리에 앉고 수 초 후, 생각했던 것보다 큰 충격으로 별론이 덜컥거리며 땅에 닿았다. 그리고 곧바로 바람의 방향을 따라 별론이 계속 움직이자, 우리가 타고 있는 바구니도 질질 끌려가더니 이내 멈춰섰다.

데이비드: 사자가 있어! 그러니 절대 나오면 안돼! 사자가 있다고!

쥬: 에~농담도 참. ("Eñ~ Kidding me?") - 아마 안 들렸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별 농담을 다하는 구나 싶었지만, 구색을 맞춰주기로 하고 가만히 기다렸다. 기장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착륙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전히 서 있는 차를 보며, 도대체 왜 저기 서있는 거냐며 혼잣말로 흥을 보더니, 사람들에게 천천히 나오라고 말했다. 사자가 근처에 있으니 멀리 가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별론 바구니에서 나와서 행색을 조금 추스르고 나니, 뭔가 심상치

얇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던 그 차 앞에, 치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가 보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내 흥분하기 시작했다. 일단 투어 에이전시에서 우리를 아침식사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차 2-3대를 가지고 와 있던 상황이라 모두 차에 올라서 멀리 보이는 치타를 구경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일단 차에 타서, 저 근처로 가서 봅시다.

얏호! 차를 타고 가까이 가서 보니, 엄마 치타 한 마리와 아기 치타 4마리가 있었다.



가장 개구쟁이임에 틀림없을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건 무서운지 계속 머뭇거리어서 그곳에 모여있게 된 상황이었다. 이런 정황이, 멋진 사진을 만들어냈다. 5분쯤 망설이던 녀석은, 결국 뒷걸음질로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바닥으로 점프하여 엄마와 형제들 틈으로 섞였다. 아, 멋있다, 동물원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생생한 느낌이 있다, 아프리카엔!





식사 테이블에 도착하자, 치타 사진을 찍느라 우리 일행이 조금 늦은 바람에, 음식이 많이 자신들의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그 유명한 들판의 아침식사였건만 5-6명이 단체 급식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좀 정신 없고 귀찮아져서 우린 새모이만큼만 먹은 후, 결국 또 점프 샷을 찍기 시작했다. 아침에 같이 출발했던 일본인 노부부가 우리 옆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의 그런 생기발랄(?)한 모습을 너무 좋아하시며 셋이 같이 뛰는 모습을 찍어주시겠다며 카메라를 달라고 하셨다. 이럴 때 절대 빠지 않는 우리이기에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열심히 뛰었으나, 2명의 박자 맞추기는 쉬워도 3명은 아무래도 힘들었다. (게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온 탓에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더욱;) 할아버지는 그게 자신이 셔터를 잘 못 눌러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며, 근처에 앉아있던 허세가 풍기는 웬 중국인에게(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던 듯) 카메라를 넘기며, 그가 거의 전문 사진작가 수준이라고, 잘 찍어줄 거라고 하셨다. 그러나...

(☹️ 중국 아저씨가 찍어 준 실패 점프샷)

(성공적인 점프샷이란 이런 것! ↓↓)



그렇게 아침을 즐기고 있을 때 별론 기장 복장을 한 동양인 아저씨 한 명이 영어로 말을 걸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히곤 '마사이 김'이란 이름으로 활동한다며 명함(↓)도 주셨다.



별론 기장을 하는 한국인이 있다니 상당히 신기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원광대에서 동호회 학생들도 가르치고(그렇다면 거기선 별론을 띄운다는 얘기?!), 캐나다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지금은 케냐에서 일하는데, 대한항공 직항이 뚫리면서 현지 여행사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인 아줌마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셨다(뭔 의미인지...).

데이비드가 근처에 오길래, 기념사진(사실 난 이 책에 넣어야 하니까, 꺾)을 요청해서 함께 찍었다.



(그 유명한 아침 샴페인을 들고 기장 아저씨와 인증샷 ↑
- 맛은 별로 고급스럽지 않았음)

이때 김 기장님이 우리가 착륙할 때 치타를 봤다는 걸 듣고는, 데이비드에게 내릴 당시 이미 알았었냐고 묻자, 데이비드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역시 사자이야기는 거짓뿌렁이었다는)

식사가 끝나가자, 데이비드가 벌룬을 탔던 사람들에게 '벌룬투어 인증증(?)'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130) 차로 이동해오는 중간에 각자의 이름을 적게 메모지를 돌렸었는데, 그게 이걸 위한 것이었다.

러부리 중에서는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붙었고, 달뻗의 이름으로 예상되는 순서가 되어 받아왔으나 이름이 달라서 다시 반납하고(이때는 외국사람들이 한국 이름 발음할 때 잘못된 것을 들었다고 생각), 워니의 것도 받았으나, 달뻗의 것은 행방이 묘연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달뻗의 이름에 들어가는 '은'을 달뻗이 'Eun'이라고 영문 대소문자를 섞어서 썼더니, 데이비드가 'Erin'으로 읽고 잘못 썼다는 게 밝혀졌다. 달뻗이 그래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보여주었지만, '네 글씨가 이래서(?) Erin으로 보인다'며 데이비드는 끝까지 달뻗의 잘못이라고 우겼다.



조식 테이블이 정리가 되자, 우린 다시 일본인 부부와 함께 조너선의 차에 탔다. 바로 숙소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가 주변의 마사야마라를 게임드라이브 시켜줬다. 타조가 나타나자, 조너선도 역시나 까사이네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라고 말해줬다. 여기서 타조가 우리나라에서의 꿩 같은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조너선은 다른 동물에 대해선 우리에게 묻지 않았는데, 타조에 대해서만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뭐라고 하는지 이름까지 알고 싶어했다.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 전에 일본과 한국은 같은 언어를 쓰는지도 물어봤는데, '같은 아시아 권이긴 하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대답하였건만, 타조의 단어는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잠깐, 알아볼까?> '타조' 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한국: 타조 [tajo]

일본: 다쵸우 [dacho-]

달빚: 타조고기가 그렇게 맛있던데, 먹어봤어요?

조너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사이족인데, 마사이들은 가축 외의 야생 동물은 먹지 않아요.

으잉? 우리의 까사이네도 분명히 마사이족이지만, 우리에게 타조가 엄청 맛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던가.

달빚: 하지만 우리 가이드도 마사이족인데, 굉장히 맛있다고 했어요!

조너선: 가이드이기 때문에 들은 걸 설명한 걸 거예요,

마사이들은 먹지 않거든요.

나중에 까사이네에게 다시 물어보니, 조너선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럴 법도 했지만, 고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자신의 취향을 말했던 까사이네의 '나도 맛있다고 듣기만 했다'는 그 말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_-+)

조너선과의 게임 드라이브 중에 암사자 2마리를 보게 되었지만, 애네들이 어찌나 늘어지게 잠만 자는지,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만 보고 자리를 떴다.





(☹그래도 사자랑 한 프레임에 들어가 보겠다고...)

공원을 떠나는 중에, 갑자기 조너선이 차 뒷바퀴가 조금 이상하다며 차를 세우고 내렸다. (이 와중에도 '하쿠나 마타타'는 잊지 않았다.) 조금 살펴보고 오더니 괜찮다며, 사실은 공원에 영역표시를 한 거라고 농담을 하고 웃었다. 이들의 이런 여유가 참으로 멋있게 느껴졌다.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묻자, 쿨하게 "하쿠나 마타타!" 라고 말하며 멋지게 웃어준 조너선)





(↑ <라이언 킹>에서 '하쿠나 마타타' 를 멋드러지게 부르는 '폼바'인 워톡
-warthog:흑멧돼지- 도 은근히 귀엽다!)





(↑가는 길에 타조 가족을 만났는데, 새끼들이 너무 귀여워서 차로 좀 가까이 다가갔더니 아빠 타조가 어찌나 우리를 위협하던지... - 조금 무서웠음)



캠프로 돌아오니 11시쯤 됐었나, 텐트에서 조금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우리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쉐프 케네디가 오더니 뭔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원래의 우리 일정(별론투어 없이 아침에 게임드라이브를 떠나서 점심으로 피크닉 식사를 하는 게 출발 전 일정이었으나, 케냐에 도착해서 별론투어 옵션을 추가했다)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점심은 도시락으로 이미 준비해놓고 식사용 분량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도시락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아마 까사이네가 이 부분을 조정해놨었어야 했거나, 했는데 이쪽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거나 했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뭐 어쩔가, 배고픈 것만 해결되면 되니 우린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케네디가 고맙다며 도시락은 텐트로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우린 텐트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가 직접 도시락을 들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착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줬으면 우리가 들고 가도 되는데)

도시락 통은 플라스틱통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반찬통 같은 것이었는데(이건 나중에 꼭 다시 돌려달라고 당부 받았다. 그만큼 물자가 귀해서 그런 거지 싶다) 그 상태가 아주 깔끔하진 않았지만, 워니나 달벳도 그에 대해선 별다른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프리카에 여행가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마음가짐이겠지만, 간혹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의 이런 개념이 참 고맙기도 했다.) 식당에서의 식사와 마찬가지로, 도시락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다. 샌드위치라고 들어있는 것도, 식빵 가운데 마가린 조금에 토마토 하나 끼워져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건지. (아프리카에선 미각이 변하는 것일까?) 영

양을 생각해서 인지 내용물도 상당히 골고루 들어있었는데(샌드위치, 닭고기, 계란, 바나나, 주스, 비스킷),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겐 양이 좀 많아서 다 먹지 못한 것은 하나의 통에 모으고, 까사이네 뭇인 도시락 하나도 오후 게임 드라이브 때 주려고 함께 챙겨두었다. 유연하게 진행된 텐트 앞에서의 도시락 식사였지만, 나름 운치 있고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이 행복감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식사 후 텐트에서 각자 조금 쉬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일지를 썼다. 워니는 답답한지 혼자 산책을 자주 나갔다. (아마 그녀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듯?) 캠프 사이트에서 기대했던 동물 울음소리 같은 건 듣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쾌적한 환경(달빳은 조금 괴로워했지만)과 시설은, 정말 내가 쉬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느끼게 해줬다. 이런 게 힐링이 아닐까.

오후 3 시가 되자, 게임 드라이브를 위해 까사이네를 다시 만났다.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일단 그에게 도시락은 넘겨주고, 더불어, 우린 준비해온 펜들은 보여주며 근처의 학교를 하나 방문해서 애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 까사이네는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하지만 내가 계속 느꼈던 느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나라 아이들이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어찌면 동정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100% 기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마사이족 학교를 원하는지, 어느 곳이든 상관없는 지를 물었다. 우린 어차피 상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학교를 골라달라고 했고, 그는 캠프 바로 가까이 있는 어느 학교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가 차를 세우자, 학교를 지키는 경비대(우리로 치면 수위아저씨?)인 마사이족 전사 2명(옆구리에 긴 칼을 차고 있었다.)이 다가와서 인사하고 까사이네에게서 내용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우리를 호위(?)해서 학교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경비대는 우리를 교무실로 안내하여 한 여자 선생님에게 소개해줬다. 우린 그냥 그녀에게 펜들을 넘기고 가려고 했는데, 그녀는 우리를 어느 교실로 안내하며 아이들을 보여주고 이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간략히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넨 펜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는 우릴 다시 교무실로 인도했다.

이때 뭔가 분위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우리에게 후원장부를 펼쳐 보이며, 학교에서 애들에게 공부 가르쳐줄 수 있지만, 집이 너무 먼 아이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식사 제공이 필요하니 그에 대한 후원금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익숙한 어조로 기계적으로 이야기했다.

달뻗이 우린 이미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 후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녀에겐 자신들에게 직접 오지 않는 후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재차 우리에게 요청했다(하지만 절대 비굴하게 하지는 않았다).

결국 총무를 맡은 워니에게 조금이라도 해야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얼마를 할 것인가 상의했다. 케냐 실링은 많이 환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쓸 돈을 대충 계산해보고는 1000실링(한화 15,000원 정도)이면 괜찮지 않을까 협의해서 결정하곤 내밀었다. 현금이 조금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괜찮다며 쿨하게(사실 너무 쿨해서 고마워하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지만) 후원금을 받았다(까사이네는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싫어했을 수도 있다).

교무실을 나서며 달빳은 저 돈이 정말 아이들의 점심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그 돈은 우리의 손을 떠났고, 우리가 결정해서 준 이상,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도 경비대가 호위해줬는데, 달뻗이 갑자기 웃음을 터트리길래 물어봤더니, 옆에서 따라오던 마사이 전사가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달뻗에게 사지 않겠냐고 설득한다는 것이었다. 너무 장난스럽게 그러고 있어서, 장삿속처럼 보이기 보다는 순수해서 어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어쨌든 덕분에 마사이어로 '안녕'이 '소파'(스와힐리어로는 '잠보')라는 말도 알려주었으니 얻은 것도 있었다.

차로 돌아오니, 까사이네는 차문을 열어놓고 앉아서 또 열심히 휴대폰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았았다(물론 모두 피쳐폰. 한 마사이족 아저씨는 달뻗의 갤럭시 폰을 보곤 무슨 휴대폰이 그렇게 크냐고 놀라기도 했다). 까사이네는 우리가 도착하자 바로 운전석에 앉으며 경비대에게 우리가 건넸던 도시락통을 넘겨주었다. 그러자 경비대원들은 아이들 몇을 불러 통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을 나눠주었다. 착한 까사이네 오라버니. 아마 이 나라에서는 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린 우리가 따로 챙겨놓았던 남은 비스킷 등도 창문을 열어 아이들에게 전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며 음식과 과자를 받아갔는데, 샌드위치를 '득템'한 한 작은 아이가 기쁨에 겨워 팔짝팔짝 뛰며 학교 안으로 들고 들어가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그것을 뺏으려고 했다. 이내 몸싸움에 가까운 다툼이 일어났고, 까사이네는 안타까워하며 출발하려던 차를 멈췄다. 우리도 놀라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 샌드위치는 찢어져서 큰 조각은 큰 아이에게, 남은 조각은 땅에 떨어져버렸다. 큰 아이는 그렇게 자리를 떴고, 우리가 작은 아이에게 줄 다른 먹을 거리가 없는지 생각하고 있던 찰나, 아이는 떨어진 조각

을 집어 들고, 그것도 괜찮다는 표정으로 탈탈 먼지를 털어 챙기곤 자리를 떴다. 애잔한 감성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케냐에서는 창밖에 보이는 아이들은 거의 100% 반가운 얼굴로 손을 들고 우리에게 인사를 했다. '우리나라에 놀러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몸짓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도 놓치지 않고 손을 흔들려고 노력했다. 한국에서도 투어 버스를 간혹 보는 경우, 우린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데, 나도 만약 저 아이들처럼 손을 흔들고 웃어주면 그들도 좋을까, 아니면 징그러워할까(난 애가 아니니까). 문득 돌아가면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까사이네는 우리에게 마사이 이름 지어주기로 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면 싫었던 건지. 내가 한번 물었었는데, '생각 중이다'라고 했지만, 어쩐지 전혀 생각 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우리에게 마사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문득 5-6년 전, 러부리 후렌즈가 양평 용문사에 '템플스테이'를 함께 하러 갔던 때가 생각났다. 워니와 나는 휴직기였고, 달빛은 3교대 근무로 인해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없을 평일에 1박 2일로 템플스테이를 갔었다. 절에 일반인은 우



리 밖에 없었던 관계로 남들과는 다르게 아주 자유로운 일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만 쓱쓱 골라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린 다도와 한시(漢詩) 공부(이건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타종, 참선 등을 할 수 있었다.



한시 공부 시간에 스님께 특별히 각자의 호(呼)를 지어달라고 부탁 드렸지만, 스님은 그런 중요한 것을 자신이 막 지을 순 없다며, 대신, 한자로 된 예명을 하나씩 지어주마고 하셨다. 우리의 어떤 기운(?)을 관찰하시곤 워니에게는 유장(柳薺-대나무에 핀 장미, 개인적으로 워니 것이 가장 멋져 보이고 맘에 들었다), 달빛에게는 야초(野草-들풀, 더불어 3글자 짜리 다른 명칭도 함께 주셨는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난다는;)라고 지어주셨는데, 나에게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겠다더니 잠시 후 어려운 한자들을 써 내려가셨다. 농고화(濃孤花-질은 고독의 꽃), 이 세상에 없는 저것은, 무슨 '독도'도 아니고 그나마 꽃이라는 지칭에 좋아해야 하는 건지, '디지게 외롭게 살다 죽으란 소리가' 라는 생각에 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았나 보다, 스님이 맘에 안 들면 조금 더 생각해봐서 다른 걸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괜찮다고 하고 받았다. 어쨌든 우린 유독 '이름 붙여지는 것'에 대해 항상 갈망했고, 이번에도 마사이식 이름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까사이네가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단 한 가지가 그것이었다는 게 아쉬웠다.



마지막 게임 드라이브에서는 가젤을 먹고 있는(!) 자칼 2마리(🐆)와 잠자던 숫사자 커플(희한하게도, 사자들이 가족단위

로 있는 것은 계속 못 보고 암사자끼리, 숫사자끼리 있는 장면만 볼 수 있었다. 원래 그렇게들 다니는 건지, 우리가 본 애들이 취향이 특이한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그건 까사이네에게 못 물어봤다)이 가장 인상적으로 본 동물들이었다.

특히 숫사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갈기를 보고 싶어서 정말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고개를 절대 들지 않았고, 근처의 다른 차에서 (가이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개념 없는 중국인들이 물통까지 던졌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사자들의 뚝심을 확인하고는 우린 자리를 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가서 그러지들 마요...)



동물들을 보는 게 점점 식상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게임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니, 공원을 떠나올 때 은근히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우린 일정이 정말 잘 짜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것보다 더 했다면 분명히 지겨웠을 것이고, 이것보다 덜 했다면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했으니까. 만족스러운 여행이란 이런 것이야!



이날 저녁에는 캠프 사이트에서의 마지막 밤을 위해 맥주도 1병 시켜 먹었다. 이번에도 역시 미지근한 온도였지만, 그래도 코끼리가 그려진 케냐의 맥주는 그 병 자체만으로도 나름의 멋이 있었다. 이번에도 3명이 맥주 1병만 마신다고 웨이터들에게 신기한 취급을 받았지만. (서양인들은 완전 대자 물통과 맥주를 테이블에 놓고 혼자 마시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캠핑 사이트에서의 두 번째 밤이자, 마지막 밤이었다. 원래 처음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할 땐 모든 일정이 캠핑 사이트였는데, 만약 그랬다면 좀 많이 피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다(이대표님, 알려줘서 격하게 고마워요!). 특히나 달뻗은 어서 빨리 일반 호텔로 가고 싶어했다. 역시 사람이란 겉보기와는 다른데, 친구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다. 아마 현재의 러부리를 누군가 보고 첫인상으로 판단한다면, 달뻗이 캠핑 사이트 같은 곳에서 가장 잘 지낼 것 같아 보일 게다. 그리고 내가 제일 못 지낼 것 같은 인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상은 워니가 가장 잘 지냈다.

생각해보면, 대학 때도 마찬가지로였다(그렇다, 러부리는 대학 동기 동창, 같은 학과 출신이다). 겉보기에는 워니가 가장 잘 놀게(?) 보이고 내가 가장 공부를 잘하게 보였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노는 것도 공부도 달뻗이 최고였다(물론 셋 중에서만의 얘기지만).

자려고 누웠는데, 달뻗을 더 괴롭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하얀 나방(크기가 손가락 2마디쯤 됐나) 한 마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날아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워니나 나나, 아주 징그러운 벌레(바퀴벌레나 지네 정도?)가 아니면 좀 덤덤한 편인데, 달뻗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엄청나게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다. (심지어 나방을 '나방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아드레날린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은 듬직한 친구가, 작은 나방 한 마리가 무섭다고 이리저리 펄쩍 뛰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조금 귀엽기도 하고 웃겼다(사실 무서워한다기 보다는 아토피가 있는 신체적 특성 때문에, 나방가루 같은 게 날리면 몸이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서 기겁하는 거였다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텐트 밖으로 쫓아내

주려고 조금 시도해봤지만(굳이 죽이고 싶진 않아서), 실패했고, 난 그냥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왔다. 결국 달뻗이 스스로 울 것만 같은 표정으로 슬리퍼를 이용해 나방을 처치했다. 사체를 치울 때도 두 눈과 입 꼬리는 한정 없이 아래로 쳐진 상태로 나방의 사체를 잡은 손을 최대한 자신의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휴지통에 넣었다. 친구의 자립(?)을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도움을 주지 않았던 러부리였다.

달뻗 본인도 나방을 죽이지 않고 그저 텐트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었으나, 나가지 않아서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처치(?) 후에도 그녀는 나방의 가루가 손에 묻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어 몇 번이고 씻어냈다.

뭐 어쨌든, 달뻗 스스로 다 해냈으니까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닥쳐도 문제없이 잘하겠지. 짹짹.

여행 7일차(10/3)

기린이 내 손가락을 물었어! 혀에는 바늘이 돌아있어!

아침 5시가 조금 넘자,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등이 켜지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아마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발전기를 돌리면서, 어제 전등 스위치를 on으로 해 둔 채 점등되었던 전등이 오늘 자동으로 불이 들어온 것일 테다.

난 사실 한국에서는 아침을 챙겨 먹지 않는데, 케냐에서는 배가 많이 고프는 건 아닌데도 뭔가 계속 먹을 것이 당겼다. 아마 중간에 간식이나 야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사실 혹시 몰라서 비상식량이랍시고 참치 캔 하나(사무실을 나설 때 동갑 친구 BK가 건네 준)가 있었으나, 딱히 그걸 먹고 싶어질 만큼 배고파진 적은 또 없었다. 침대에서 조금 뒹굴 거리다가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여기에서의 마지막 식사이자, 식당의 종업원들과도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워니가 가져온 태극선 부채를 사람들 숫자만큼 준비해서 나갔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머무는 동안 마셨던 음료수 값(스프라이트 100실링, 맥주 200실링: 우리 돈으로 포함 4천원 정도)을 치르고, 식당 스태프들, 마사이족 경비, 셰프에게도 부채를 하나씩 선물하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머무는 동안 팁을 따로 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식당에 있는 팁 박스에도 소정을 금액을 넣고 작별인사를 하고 나왔다.

안녕, 엔초로 캠프 사이트!



(↑쉐프 케네디와 함께한 달빛과 위니)

(캠프 경비를 보는 마사이 전사와
함께한 위니와 쥬,
마사이 전사는 정말 가늘고 길고
작은 얼굴...! 🤔)





(↑엔초로 캠프 사이트 입구, 훗해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묵었던 것과 같은 텐트가 꽤 여러 동 숨어 있었다.)

(캠프 안에서는 간혹 물통을 끈으로 묶어서 머리에 진 여인네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제대로 된 우물은 관광객들이 묵는 캠프 사이트에 밖에 없었기 때문이리라, 🙄)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길은 역시나 멀었다. 그래도 까사이네가 운전
을 잘하고 빨리 달려서 4-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문을 닫고
달리는 데도 차 안에서는 먼지향(?)을 맡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게 공해물질과 연결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꺼려했을 텐데, 그곳
에서는 그게 자연이라는 생각에 더 즐겼다. 마음껏 들이키면서.

먼지가 좀 잦아드는 도로에 이르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만끽했다.
습도가 낮아서 바람의 느낌이 정말 상쾌했고 기온도 적당해서 간혹
발생하던 관절염도 자취를 감췄다. 건조해서 발생하는 피코딱지만
아니라면, 정말 사랑스러운 날씨여서 그곳에서 눌러 살고 싶을 정도
였다.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주려는 듯, 동물들이 보이면 까사이네가 우리
에게 동물이름을 묻기 시작했다. 다 본인이 한번 이상씩은 가르쳐
준 것이었기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테지만, 영양과(科)에
속하는 동물들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우리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맞추기 힘들었고, 결국 아는 이름을 순서대로 다 내뱉었다. 그마저도
대부분 틀리거나 아예 상관없는 이름인 경우도 많아서, 까사이네가
상당히 실망하였다. (하지만 변명하자면, 발음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
는 경우도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었다. 지금도 전혀 스펠링을 상상할 수 없
는 동물명도 있다. Bachelor와 비슷한 발음이었었는데, 'Bachelor with horns',
이런 식으로 불렀다. 생긴 건 일런드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lovandy@naver.com으로 제보 좀.)

까사이네가 갑자기 우리에게 한국은 어떤 노래를 듣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린 워니의 폰에 저장되어 있던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를

들어주며 요즘 이 노래가 인기가 많다고 말해주었다. (내 폰이 정상이었다면 아마 <G드래곤> 싱글앨범을 들려줬을 텐데.)

그러자 노랫말은 무슨 의미인지 또 물었다. 조금 난감하였지만, 짧은 영어로 가사를 요약해줬다.

쥬: 사랑하는 사람이랑 벚꽃 밑을 함께 걷고 싶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자 까사이네는 음률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다!

"I want to walk with you~ You-하오~"

..G드래곤 노래를 들려줬으면 큰일 날 뻔 했다. -_-; (해석 어쩔!)

마사이마라에서 나이로비까지 가는 길은 중간 정도까지는 길이 닦여 있지 않아서 상당히 고된 길이었다. 일본인 노부부도 정말 힘들었다고 우리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곳들은 어르신들도 다니기에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았는데, 그 길 때문에 부모님께 권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이바샤에서 마사이마라로 넘어갈 때 보다는 마사이마라에서 나이로비로 올 때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오는 길에 'Olare Gift Shop'에서 다시 쉬었는데, 간만에 여유롭게 스마일맨 인증샷도 담았다.





(☺워니는 길로 나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처음 왔을 땐 몰랐는데, 이곳의 바닥에는 조경한 듯한 수정 같은 돌들이 깔려 있었다. 문득 동생이 기념품으로 돌이나 가져다 달란 말이 생각나서(이미 돌조각 목걸이를 사긴 했지만) 우리 팀원들에게도 주려고 몇 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

(사실 어찌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돌일 수도 있는데
- 사진보다 좀 더 반짝이는 유색 수정 같은 돌이었음)



++깜짝 팁! 케냐 여행에서 '있었으면 했던' 물품들

-식염수: 게임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눈에 바람을 많이 맞고, 먼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식염수나 인공눈물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고글: 이것도 위와 비슷한 이유인데, 게임 드라이브할 때 차 뚜껑을 열고 일어서서 풍경을 감상할 때 바람 막이가 잘 되는 고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망원경: 일반 게임 드라이브할 땐,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기능이 뛰어나면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LCD를 통해서 보는 것과 망원경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우리는 별론 투어할 때 망원경이 있었으면 했다. (데이비드 기장 할아버지는 그걸 특특히 활용하고 있었다.)

-방한복이나 모자: 추위에 약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꼭 필요한 의복이다. 나는 가지고 있던 옷으로 대충 잘 버텼으나, 그래도 간혹 한기가 느껴질 때면, 방한복을 입은 달빔과 워니가 조금 부럽기도 했다.

-손톱깎이: 장기 여행갈 땐 꼭 챙겨가지만, 이번은 10일이 채 안되어서 가져가지 않았는데, 역시나 필요했다. 특히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 손톱이 깨져서 옷에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

-덕테이프: 이게 왜 필요하나 싶겠지만, 모든 숙소에 있는 케노피들이 완벽할 순 없었다. 룯지에서는 구멍난 부분을 묶어서 해결하기도 했지만, 캠프 사이트에 가니 구멍들을 덕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좋은 아이디어다 싶었고, 작은 거 하나쯤은 있다면 여러모로 유용할 것 같다.

-반짚고리: 보통은 호텔에 다 있어서 챙기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케냐의 숙소에서는 마지막 한 곳 빼고는 없었다. 우연찮게도 내가 3일쯤 계속 입어야 되는 옷 중 하나가 출발하는 날 실밥이 터지는 바람에 반짚고리의 존재가 여행 기간 중 상당히 아쉬웠다. 작은 물품이니, 가급적 챙기자.

주유소에 잠깐 들렀는데, 까사이네가 밖에서 누군가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길래 궁금해서 물었더니 자신의 친 누나라고 했다. 역시 그녀도 마사이족임에도 불구하고, 까사이네처럼 살집이 있으셨다. 저 가족은 마사이족 정통의 유전자를 거스르는 가족임에 틀림이 없다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그녀를 반가워하며 기념품으로 가져온 연필도 주고 같이 사진 찍자고 했으나, 까사이네가 누나를 데리고 자리를 옮겨 버렸다.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자신의 국민이 여행자들에게 호기심 거리가 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다.)

조금 기다리자 포대 몇 개를 가져와서 보조석에 실었다. 누나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챙겨 준 감자와 양배추라고 했다. 가족간의 정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푸근했다.



(까사이네 누님의 사랑이 담긴 식료품 포대는 보조석으로 ↑)

여행이 끝나가는 일정이 되면서, 워니와 나는 특히나 더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다. (달뺏은 취미인 살사를 너무 추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조차도 끔찍하게 느끼지 않고 차에 데리고(?) 다녔다. (사실 죽이는 건 좀 그렇고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지만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튕겨낼 수가 없었다. 안 보이면 사라졌나 싶었는데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그런 벌레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둔 이유에 대해, 그 바퀴벌레 조차도 한국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덜 징그럽게 생겨서였다면 변명이 되려나.)

나이로비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이대표가 나와있었다. 함께 그의 친구가 운영한다는 일식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과 내일 일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원래는 내일 일정이었던 카렌 브릭센 박물관과 지라프(Giraffe)센터(이것도 별로 볼 것 없다고 이대표가 빼는 걸 권했지만, 잠깐 봤던 책에서 기린에게 먹이를 직접 줄 수 있다고 본 터라 내가 우겨서 가자고 했다)는 오늘 가기로 하고 코끼리 고아원은 빼기로 했다. 우리 현지 시장도 방문해보고 싶었지만, 교민들도 쉽게 가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비행기 안에서 보고 온 덕에, '카렌 브릭센 박물관' 투어가 상당히 관여도 높게 진행되었다. 영화에 근거하여, 남편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남은 자료에는 남편과 함께 한 모습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녀가 얼마나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었는지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녀가 케냐에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는지도.

세상이 바뀌는 데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은 노력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 박물관 앞에서 이런 사진도 찍고!
- 찍을 때도, 합성할 때도, 나의 노가다가 듬뿍 들어간 산물)



지라프 센터는 작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보여주는 것이나 규모와는 상관없이, 게임 드라이브에서는 먼 곳에서 두려워하며 보던 큰 기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게다가 직접 먹이까지 줄 수 있었으니까!



(↑기념품샵의 간판도 예쁜 지라프 센터)

너무 많이 먹이를 주면 다른 관람객이 주려고 했을 때 가까이 안 오기 때문에 저런 안내판(☞)을 걸어놓았겠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기린 한 녀석이 정말 끊임 없이 먹을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던 관람객들은 마음껏 먹이를 줘볼 수 있었다.





기린의 혀는 정말 두껍고 거친 가죽 같은 느낌이었다. 너무 까칠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바늘들이라도 붙어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그 혀가 손바닥을 스칠 때 아픔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녀석들의 침은 <에일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그것처럼, 굉장히

진득하고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먹이를 주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기린에게 손 내밀었다가 막상 혀가 닿자 깜짝 놀란 달빔)



내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지만, 녀석들이 너무 빨리 먹는 바람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난 먹이를



원 손가락에 힘을 주고 조금씩만 줘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자, 녀석이 내 손가락을 깨물어 버렸다, 꽤 세계!

결국 난 짧은 비명과 함께 손가락 힘을 풀며 녀석에게 굴복했다. 나의 왼손에는 녀석의 굵은 이빨 자국과 엄청난 침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더 세계 안 물린 게 다행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찍었음!)

호텔로 가는 길에 잠깐 대형마트에서 30여 분 쇼핑(이라고 부르기엔 뭐하지만)을 했다.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나이로비 도심은 이미 교통혼잡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린 가족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주로 커피나 과자)을 좀 고르고 구경하는 데에 시간을 거의 다 썼다. 계산은 신용카드로 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는데 영수증에 여권번호까지 쓰라고 하길래 못 외운다고 했더니 그냥 통과(이럴 거면서 왜 쓰라고 한 건지). 계산대에는 비닐 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 직원까지 따로 배치되어 있었다(아마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또 포장코너도 따로 있었는데, 워니는 포장지가 맘에 든다며 굳이 과자 하나를 포장하는 관광객 마인드를 발휘.





(↑ 포장지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되었을까?)

마트를 나와서 나이로비 시내의 라이코 리젠시 호텔(Laico Regency Hotel)까지 오는 길은 정말 엄청 복잡했다. 차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들을 알아서 하는 지 신기할 정도. 도중에 어떤 버스와 고급차가 약간 부딪힌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의 오지랖 넓은 까사이네는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괜찮네, 그냥 가도 되겠어요!” 라며 고급차 운전자를 달래고 지나쳐왔다. 고급차 아저씨는 꽤 화난 표정이었는데, 결국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의 짐을 내려 준 까사이네는, 이제 작별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4일의 나이로비 시내 일정이나 5일의 공항이동을 그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너무 갑작스런 이별 통보(?)라서, 우린 어안이 병병하였다. 자신의 일은 원래 여기까지이고, 5일은 자신이 올 확률이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했다. 우린 너무 섭섭해하며, 전 일정 동안의 팁(15불*6일)에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 더하여 100불을 건넸다. 더불어 일정 내내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태극선 부채와 남아있던 기

넬름 연필 약 15쌍 정도를 뭉치로 선물하며 까사이네의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 달뻗은 거기에다 자신이 가져왔던 한글이 쓰여진 티셔츠 하나를 부인에게 주라며 선물했다. 까사이네는 내년 11월 즈음에 한국으로 리프레쉬 휴가를 오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때 꼭 연락해서 만나자며 워니가 자신의 명함을 넘겼다. 그렇게 우리의 전 일정을 책임지고 여행을 흥겹게 만들어줬던 '하쿠나 마타타' 까사이네와의 짧은 인연을 마무리하였다. 그가 정말로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면, 러부리는 꼭 맛있는 고기를 사주리라. (더불어 우리의 마사이식 이름도 꼭 받아낼테닷!+_+)

까사이네를 보내고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와 함께 넷이서 찍은 사진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이런. 이런 걸 잘 놓치지 않는 게 진정한 여행자의 자세인데, 우린 아직 멀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남쪽인지 북쪽인지 물었다. 케냐에서는 특히나 이런 경험이 자주 있었는데, 막상 북한에서도 여행객들이 자주 오냐고 우리가 물으면, 그런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왜 묻는 거야?)

방에 짐을 정리하고 대중 씻기로 했다. 이곳에도 역시나 슬리퍼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다. 다른 나라의 호텔에 가면 보통은 슬리퍼도

많이 있는데, 케냐에서는 마지막 호텔을 제외하고는 슬리퍼를 보지 못했다. 대한항공에



서 주는 기내용 일회용 슬리퍼라도 챙겨올 걸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었다. 어차피 그건 바로 1회용이니, 여행오시는 분들은 챙겨오시면 좋겠다.

저녁으로 현지식 야마초마를 이대표가 사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가 도착해서 연락이 올 때까지, 방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볼만한 TV 프로그램인 영화 채널에서 우리가 좋아하던 <리얼 스틸>(안 보신 분들께겐 강추를! 최근에 나온 가족영화 중에선 최고라고 생각)을 다시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 아저씨 언제 온 댔지?

워니: 6시쯤? 근데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달빛: 그럼 뭐라고 불러?

쥬: 이 대표님?

달빛: 우리 대표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불러?

쥬: 음, 그럼... 이 사장?

결국 우린 그렇게 호칭을 정리했는데, 사실 그 뒤로도 계속 우리끼리는 아저씨라고 불렀던 것 같다. (있는 데서만 안 불렀으면 됐지 뭐.)

고대하던 현지식 야마초마를 먹기 위해 상당히 현지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으로 갔다. 금방 어둠이 찾아오고 정말 깜깜해졌었는데, 그 와중에 한 쪽에서는 스크린으로 축구를 보고 있었고(역시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우린 그 어두운 와중에 사진을 좀 남겨보겠다고 용을 썼다(거의 실패했지만 📷).



우리가 먹은 야마초마는 염소고기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었는데, 특히 나는 간이 입맛에 맞아서 주로 그쪽을 공략했다. 하지만 역시, 조금 식으니 염소 누린내가 나서 더 이상은 먹을 수 없었다. 음식이 많이 남아 아깝긴 하였으나, 싸갈 수도 없고... 밖에는 못 먹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이미 우리의 위장 게이지는 한계를 찍어 버렸다.



(☞구운 고기를 통째로 가져와서 테이블에서 썰어준다.
야마초마와 함께 곁들여 먹는 채소-상큼매콤-조합과 백설기 느낌의 곡물요리↓)



달빳이 아프리카에서 살사(Salsa) 바(Bar)를 가보고 싶다고 까사이네에게도 계속 말했던 터라, 이대표도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알아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딱히 '살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기는 힘들었고, 결국 그냥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술집으로 우릴 안내했다.

<카사블랑카>라는 그 술집은, 확실히 그곳 사람들에게는 이국적인 느낌의 바일 것 같았다. 이대표가 보드카 베이스의 맥주(스미노프 아

이스 ☞ -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스미노프 보드카가 정식 런칭되었다)를 알려줘서 그것을 마셨는데, 꽤 맛이 있었다.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많이 파는 KGB나 크루저 맥주 류인데, 이것이 조금 더 청량감 있는 맛이랄까.



그곳에서 우리가 그간 궁금했던 이야기들도 물어보고, 이대표가 방 송사들의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모험담(차마 여기에서 밝히기 는 좀... - 궁금하면 500원?)도 들으며 잠시 시간을 보냈다.

그나저나, (달뻗에게는 안타깝게도) 케냐에서의 살사바 투어는, 그렇게 (시작도 못해보고) 끝이 났다.

여행 7일차(10/4)

우리의 일정은 정말 크레센도(Crescendo)로 잘 짜졌어!
하지만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라이코 리젠시 호텔은, 머물렀던 곳 중 아침 조식이 가장 멋지고 종류가 다양했던 곳으로 기억된다. 잼의 종류만도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어서, 주머니에 종류별로 넣고 오고 싶은 욕구를 참느라 꽤나 갈등되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도 나의 위장 상태는 그다지 좋지 못하여, 제대로 챙겨먹진 못해서 아쉬웠다.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 T_T)



이날 바로 숙소를 다시 옮겨야 했기 때문에 방에서 다시 짐을 챙겨 나왔다. 나와 달빰이 이대표의 차에 짐을 싣고 워니는 체크아웃을 하기로 했는데, 워니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냉장고 안에 있던 물은 유료여서 그걸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었다 했다. (어째 냉장고 안의 물과 바깥에 놓인 물의 종류가 다르다 했더니만)

우린 바로 커피 농장을 견학하기 위해 나이로비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다. 나이로비 시내에는 여전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했고 어지러울 정도였다. 창문을 열고 다니면, 차가 멈춰있을 때 소매치기가 손에 쥔 휴대폰까지 빼앗아 간다면서 이대표는 대부분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을 켰다(에어컨 켜는 건, 케냐에서는 이대표의 차 안에서만 경험).

뿌연 먼지를 날리며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케냐의 다른 많은 곳과 동일하게 어김없이 학교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붉은 교복을 입고 길을 건다가 우리를 보곤 손을 흔들었다. 왜 이 시간에 애들이 돌아다니는지 의문이었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이대표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깔끔해 보이는 교복은, 그러나 군데군데 헤지고 구멍이 난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는데, 그런 부족함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 했다.

우리가 도착한 커피 농장은 음부비(MBUMI)란 풋말을 달고 있었다. 처음 들어설 땐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작은 공장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는 투어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초입만 보고 판단했다는 반성으로 바뀌었다.





이 커피농장에서 우리를 가이드 할 임무를 받은 사람은 '조'였다. 키가 상당히 크지만 얼굴이 정말 작고 팔 다리는 마른 (<맨인블랙>에 나올 것 같은) 케냐인이었는데, 손에 흠먼지가 많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사를 하며 거침없이 악수를 청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그의 그런 행동에, 우리도 덩석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눴다.

(☞원두열매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 조)

사실 커피 농장 투어라고 해 봤자, 나무 좀 보여주고, 열매를 좀 보여주고, 커피 볶는 걸 보여준 후, 커피를 사가라고 하는 마무리를 향해 내달릴 여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는 정말 자세히 커피 묘목에서부터 열매, 다른 나라에서 재배하는 커피 나무들과 케냐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라비카 종이 얼마나 좋은지,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지렁이(지렁이들을 손으로 들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 - 분명 우리랑 악수하기 전에도 저 지렁이들을 만졌을 것이다;)를 이용해서 커피 나무를 키운다는 등의 정보를, 농장 전체를 돌면서 설명해줬다(발음



이 독특해서 전부 알아듣는 것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커피 열매를 손으로 으깨서 원두를 감싸고 있던 과육도 먹어보라며 실습(?)하게 해주고, 커피 열매를 씻는 과정을 우리 셋만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인데도 하나하나씩 다 보여줬다. 솔직히, 세척 겸 등급 분류 기계가 당시 가동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해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해해줬을 텐데, 수돗물도 틀어서 실제로 내려 보내고, 기계도 전기를 올려 작동시켜 가면서 자신들이 일하는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포대에 담는지. 그리고 그 포대에 담은 커피에 대해 얼마나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포대에 그려진 케냐의 지도와 그걸 든 그의 모습이 그 커피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 커피 원두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6등급 정도로 나뉘지며 모든 포대에 정직하게 그 등급을 표기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에도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 커피나무)

(원두 세척 과정 ↓)



(☞ 세척 후 건조 과정)



(↑ 원두 포대에 그려진 그림과 문구가 그들의 커피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커피를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투어를 마치고 이번엔 직접 시음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다.



(☺가는 길에 만난 강아지들, 아프리카에서는 얼룩말보다 강아지 보는 게 더 어렵다, 그리고 개들도 상당히 야원 모습.)

굉장히 소박하게 준비된 찻잔들과 주전자, 화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물을 좀 더 빨리 데우기 위한 현대식 무선 포트도 있긴 있었다.)

화로 위에서 커피 원두를 조금 특이하게 생긴 넓은 원형의 팬에 넣고 주걱 같은 것으로 슬슬 저어가며 익혔다.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는데(진정한 수제 로스팅이라고나 할까), 중간 중간에 워니나 달뻗에게 주걱을 넘기기도 했다. (난 상대적으로 안쪽에 앉아있어서 기회가 없었다.) 워니와 달뻗이 로스팅을 할 때, 팬의 가장자리가 막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이 바깥으로 흘렀다. (난 내 성격대로 친구들에게 찻잔을 꽤나 날리고.)



처음엔 그냥 깨 볶는 냄새 비슷하게 나더니, 조금 지나자 커피 향이 진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색깔이 검게 변하자, 조는 원두를 갈아낼 때가 되었다면서 우리 나라에서 마늘 찜을 때 절구 공이처럼 생긴 물건들을 가져와 그곳에 볶은 원두를 쏟아 넣었다. 그리곤 정말 말 그대로 원두를 '쁘개기' 시작했다. 계속 했다. 힘들어 보였다. 워니에게 넘겼다. 달빳도 했다. 이번엔 나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온 힘을 모아 뿌개도,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그 원두가루와는 한참 멀어 보였다.



(↓머리까지 휘날리며 열심히 뿌개고 있는 달빳)





그렇게 한참을 갈아낸 뒤, 조는 인도에서 가져왔을 법하게 생긴 도자기 주전자에 원두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종지처럼 생긴 찻잔에 거름망을 올리고 커피를 따라주었다. 커피맛은... 음... 유럽인들은 싫어할 스타일? (보리차에 가까운 연한 아메리카노?) 그래도 워니는 맛나다고 잘 마셨던 것 같다. 난 원체 아메리카노는 잘 안 먹는 편이라 살짝 맛보는 정도로 끝.

(☞ 이대표, 거름망에 커피 내리고 계심.)

그 자리를 정리하곤 드디어 커피를 판매하는 곳으로 갔다. 달빳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마실 커피를 여러 봉 샀고, 워니와 나는 기념품 삼아 한 봉(250그램짜리)씩 샀다. 이미 전 날 커피를 샀던 것도 있고 해서(사실 농장이 훨씬 싼데 난 이미 인스턴트 커피로 사놓은 터라), 난 외가댁에 기념품으로 드릴 용도로 고른 것이다. 포장재 구멍으로 새어 나오는 커피 향이 참 좋았다.





(↑커피 농장에서 내다 보이는 작은 호수, 이대표님이 물고기 많이 잡히냐고 물어보고 그 주말에 간다고 했었는데, 대어 낚으셨나 모르겠네.)

커피 농장을 떠나서 바로 케냐에서의 마지막 숙소인 사파리 파크 호텔(SAFARI PARK HOTEL)로 왔다.





역시 그간 다녔던 곳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좋아 보이는 호텔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파라디스그룹 회장이 이곳에 만든 자매호텔 같은 거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단 하루를 묵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났다. (단적으로, 이곳만 유일하게 슬리퍼가 있다던가, 방안에 비치된 스프레이 모기약이 한국제품이라던가)

호텔 프런트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려서 참엔 그게 무슨 사운드 효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새장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

이대표의 여행사 사무실이 이 호텔에 입점해 있어서, 그 새들 중 한 마리가 자신과 친하다며 계속 불렀지만, 새는 반응이 없었다... (-_-;)



방에 짐을 풀고 호텔 내 식당에서 이대표와 점심을 하며 현재 한국에서의 '애니팡'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케냐는 아직 무선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간혹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점심을 마치자, 저녁 식사(호텔 내부의 '사파리 캣츠 쇼'가 예약되어 있었기에)에 대한 안내와 내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일정에 대해 이대표에게서 듣고 헤어졌다. 이대표가 너무 쿨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내일 아침에도 간단히 인사라도 하러 나오려나 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대표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보통은 '이제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간 여행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정도는 마무리 인사하지 않나?)

확실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임을 인증.



(↑내가 먹은 어린이 메뉴 -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이사장(이대표님) 이야기

같이 다니는 중간 중간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상적이었다. 손님이 4팀 이상 되면 정신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예약이 너무 없는 시즌이 되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초코파이를 2개씩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아마 본인의 마음은 자유롭고 싶으나, 아직까지 그게 생활로 체득은 안 된 것 같다. 아무튼, <울댓사파리>를 통해 케냐를 여행하실 분들은 꼭 시기를 잘 분산하셔서 이용하시길(?).



호텔 시설이 좋다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 우린 이번엔 제대로 된 물놀이를 해보자며 야심차게 수영장으로 왔지만, 역시나 이곳에서도 물의 온도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는 워니는 물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서 따뜻한 돌바닥에 몸을 녹여야 했고, 나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왔다. 물을 좋아하는 달빳은 여전히 흥겹게 수영장을 배회하며, 몸을 많이 움직이면 괜찮다고 우리를 꼬드겼다. 그러다 갑자기, 러부리의 웃긴 사진 찍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달빳이 물 속에서 뛰어오르면서 그 찰나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종류별로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혼자 찍는 거 말고, 나와 같이 싱크로나이즈 수영을 흥내 낸 컨셉을 찍고 싶다고 요청했다. 추워서 들어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또 언제 아프리카에서 그런 걸 해보겠냐 싶어서 이 악물고 물에 들어갔다. 그렇게 건지게 된, 이번 여행의 추억들.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을 베란다 난간에 넣어놓은 다음, 호텔 내부의 기념품 샵을 돌기 위해 나섰다. 특이하게도 케냐에서는, 길 거리에서 들르게 되는 기념품샵보다, 호텔의 샵이 더 싼 가격을 제시한다. 아마도 가격표를 명시해야 하고 호텔 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최대 10분의 1, 최소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도 잘 흥정하면 또 깎아준다.

난 원래 물건 값을 많이 깎는 편이 아니라서 15% 정도 깎는 것에 만족했지만, 워니와 달벚은 꽤 집요하게 흥정에 들어갔고(물건도 훨씬 많이 구매), 달벚은 거의 50%에 육박하게 할인을 받아냈다.

++아빠를 위한 선물

출국 직전에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선, 아빠가 상아로 된 조각품을 좀 사오라고 하셨다며 전해주셨다. 단순히 '비쌀 것 같다' 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막상 기념품 샵을 둘러보며 찾으니,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다. 나중에 직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상아거래는 불법이라고...; 잘못했으면 그 유명한 '케냐 기념품 소녀'의 2번째 사건을 내가 만들어 냈을 지도. 결국 (겉보기 색상으로만) 제일 비슷하게 보이는, 하얀 돌을 깎아서 만든 코끼리 상(코를 위로 쳐들고 있는 모습.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행운을 상징한다고 함)을 하나 사다 드렸다. 하지만, 그런 건 쌍으로 사와서 2개를 놓아야 모양새가 나는 것인데 '센스 없게' 하나만 사왔다며, 아빠에게서 핀잔을 들었다는 후문. (π_π)



(문제의 코끼리 기념품 🐘)

방에 다시 들어서 기념품을 놓고, '사파리캣츠쇼'를 관람하기 위해 다시 방을 나서는데, 꽤 급이 높아 보이는 호텔 직원이 막 우리 방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직원아저씨: 안녕하세요, 방은 어떠신가요?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러부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아요.

직원아저씨: 사실 저는, 당신들을 보러 왔습니다.

러부리: ?

직원아저씨: 베란다에 옷을 넣어 놓으셨던데, 그것들을 어딘가에 담아서 제게 주시면, 무료로 건조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러부리: 아, 왜 그러시는 거죠?

직원아저씨: 바깥 쪽에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러부리: 아...

아저씨가 손님의 맘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도 정중하게 설명하고 서비스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세탁물을 만져서 거의 말랐던 걸 확인했던 터라, 우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거의 말랐으니 그냥 지금 방안으로 들이겠다고 했다. 아저씨도 만족해하며 자리를 뒀다.

쇼를 보러 가는 길에 바깥에서 우리 방의 베란다 쪽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정갈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다. 그런 장면에서 우리의 옷들이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보기 싫게 널려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어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그의 정중했던 태도가 좋았고, 우리도 바로 옷을 방 안으로 들일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사파리 캣츠 쇼는 무대 앞에 테이블이 놓여진 디너 쇼로 진행이 됐다. 메뉴는 야마초마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날 서비스되는 고기의 종류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식당 한 켠에 있는 작은 무대에서 밴드가 연주를 하며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팝송부터 시작해서 중국 노래, 한국 노래 등도 불러 주었다. 아무래도 국적이 있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앞에 앉아있는 손님들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단체 손님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동조하게 되는데, 중국인 팀과 한국인 팀 간의 작은 경쟁이 붙기도 했다. (우리는 마치 전혀 다른 국적의 사람들인 것처럼 한 쪽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다.)



식사의 처음은 식전 빵과 스프(남은 스파게티를 다시 끓인 느낌이라 달빳은 싫어했지만)를 주고, 각자 앞에 있는 나무 판 위에 달궀진 철판을 얹어준다. 그리고 구워진 고기를 꼬챙이에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고기인지 알려주고 조금씩 썰어주면 손님은 그걸 먹는 방식으로 식사가 진행됐다.



(☞ 러부리의 스미노프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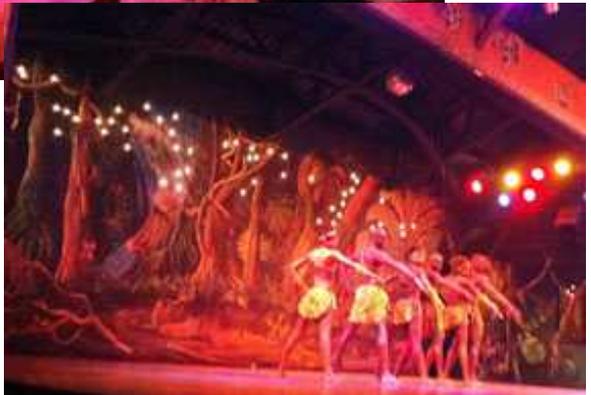


사실 우리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인지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먹어 본 특이한 고기로는 악어와 타조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인들은 악어고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미리 들은 바가 있어서 거부감이 좀 덜했는데, 확실히 나도 그게 가장 맛있었다. 고기의 느낌은 소고기 양지사태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모든 고기가 그렇듯이 부위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방과 근육이 적당히 섞여서 쫄깃쫄깃한 덕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달빳도 악어가 제일 맛있었다고 했고, 워니는 양고기가

좋았다고 했다. 우리가 많은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하자, 서빙하는 종업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너네 고작 그거 먹자고 온 거니'라고 말하는 듯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한국인이 꽤 많이 손님으로 다녀간 건지, 종업원들이 웬만한 동물 이름은 한국말로 알고 있었다. 내가 악어(Crocodile)를 더 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악어?'라며 한국말로 확인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의 영어를 잘 못 알아먹으면 '돼지 갈비'라고 설명해주기도 해서 깜짝 놀랐다.

'사파리 캣츠 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난 단순히 민속춤 같은 걸 추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스테이지 별로 스토리와 형식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복장도 다양하게 바뀌고 무용수들의 스타일도 민속춤,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등으로 특징이 있었다.



특히 무용수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아프리카 특유의 탄력적인 몸매와 빛나는 피부, 무용으로 다져진 매끈한 근육들은 그들의 무용 실력이 오히려 가릴 만큼 매혹적인 부분이 있었다. 난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야마카시'같은, 강하게 몸을 쓰는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나 이 들어서 다치면 고생할까 봐 못하고 있었던 터라, 그들의 덤블링이나 점프를 보면서 다시 '한국 돌아가면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역시... 돌아오면 그런 마음은 잊는다; 회사 동료와 걷기 운동하자던 것도 아직 못하고 있다. 날은 추워져 버렸을 뿐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들의 공연을 어깨도 들썩거리고 박수도 열심히 치면서 즐겼다. 아마도 이제껏 여러 나라를 다니며 봤던 민속 공연 중에서는 가장 신나게 즐겼던 것 같다.

<잠깐, 알아볼까?> 왜 사파리 '캐츠 쇼' 라고 하는 걸까?

...알아내고 싶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사파리 파크 호텔에 메일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다;; 이것도 제보 받습니다, 훗,

쇼가 끝나면 출연진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앞에 벤치 같은 의자를 하나 두고, 거기에 손님들이 앉아서 찍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찍기 위해 줄을 섰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서비스지만, 난 어쩐지 무용수들을 '인증샷을 찍어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다. 의자에 안 앉고 그냥 함께 서서 찍는 구도였다면 그런 느낌

이 훨씬 덜 했을 텐데.

(사진 찍으려고 무대에
줄 선 사람들,
그리고 사진의 배경으로
대형을 잡은 무용수들 ☞)



나오는 길에 음식을 조리한 요리사들과 함께 사진 찍고 싶다고 워니가 의견을 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케냐는 어디에서건, 함께 사진 찍는 것을 흔쾌히 허락한다(어쩔 땐 오히려 그들이 더 원하는 것 같다).



(위의 사람들은 옥해놓고,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워선적인가;)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관광 일정이 끝이 났다.

여행 8일차이자 돌아오는 날(10/5)

여행의 끝은 언제나 꿈을 끈 듯한 기분. 특히나 아프리카는 더!

드디어 돌아가는 아침이었다. 여행 내내 두고 온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내 아이폰이 맛이 간 후로 그 걱정을 확인해서 없애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했다. 그래서인지 이 여행이 끝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곧 없앨 수 있겠구나 싶은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있었던 아침이었다.

원래 우리의 계획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었던 중 가장 좋았던 이 숙소의 주변을 한껏 돌면서 산책도 하고 조식도 마음껏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짐을 완벽히 챙겨 프론트에 맡기고 움직이려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씻고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끝은, 짐을 싸느라 1시간 넘게 소요한 뒤, 산책은커녕 조식도 느긋하게 먹지 못하고 체크아웃을 하러 가느라 부랴부랴 움직여야 했다는 것이다. (어흑!)



(☞ 여행 내내 충무를 맡았던 워니가 관리하던 봉투 지갑과 마지막 지폐 한 장. 내역의 대부분은 팀이다.)



(↑호텔 로비에서 차를 기다리던 나와 달벚, 표정이 굳었다, 여행으로 지친 것 때문보다는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리)

공항까지도 여행사가 전용차로 이동시켜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 프론트 앞 소파에 앉아서 여행사(이때까지는 이대표가 오리라고 믿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남녀 한 쌍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그들도 같은 여행사를 통해 왔으며, 우리와 함께 공항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 했다.

러부리: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일행인 줄 알아보셨어요?

남녀: 어제 이대표님이 여자분 3분이랑 같이 가게 될 거라고 말해주셔서요.

응잉? 그런데 우리에게 한 마디 언질도 안 해줬었다니,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였다. 사실 이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대표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을까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던 터였기에 그 충격(?)이 더 했다.

그 분 정말로 여행사 계속 하실 거 맞나...;

차를 기다리며 답소를 나누다가, 그들이 신혼여행을 온 부부라는 것을 알았다. 케냐로 신혼여행이라니, 이런 멋진 부부 같으니라고! 친구들끼리도 쉽지 않은 이런 곳을, 부부가 평생에 단 한번 뿐인 신혼여행(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으로 선택하다니, 이 정도로 삶의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평생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린 마구 경탄해줬다.

달빚: 근데, 두 분 사내 커플이시죠?

남녀: (깜짝) 어! 어떻게 아셨어요?!

달빚: 제가 그런 감이 좀 좋아요,

누가 형사 아니랄까 봐, 이런 상황에서도 그 축을 여지없이 발휘해 주신 문형사.

신혼부부는 우리보다 조금 긴 12일 일정으로 왔는데, 우리가 못 들
른 몸바사(Mombasa)에 2박
3일을 묵었다고 했다. (B가 수도
도 나이로비, A가 몸바사 →)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도
나온 곳인데, 우리는 이동 거
리 및 교통편(기차로 14시간)
및 위치적인 문제로 포기했던
지역이어서, 그들의 여행기를



들을 때 굉장한 아쉬움이 솟구쳤다. 부부는 갈 땐 기차로, 올 땐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데, 가격차이는 실상 크게 얼마 나지 않았다고 했다. 다소곳한 아내 분(하지만 목소리는 상당히 터프 하셔서, 둘만 있을 땐 어떠실지)에 비해, 굉장히 사교성이 넘치는 남편 분 덕에 재미있는 여행기도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차에 짐을 실을 때 보니, 신혼여행 온 부부가 우리보다도 기본 짐이 훨씬 적은 것이 아닌가. 소형 캐리어 1개에 둘 다 가방 하나씩. 아, 이런 개념 부부 같으니라고!

남편: 사실은 저 캐리어도 안 들고 오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배낭 안 매겠다고 해서요,

오우. 용자였다. 말을 들어보니 여행 계획도 굉장히 꼼꼼히 짜고 많이 알아본 게 확실했다. 나중에 우리끼리, 저 남자 분은 살림도 엄청 잘하겠다고 얘기했다(더불어, 부인은 남편이 살림을 너무 간섭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혹시나 공항으로 이동할 때 까사이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마도 못 볼 거예요'라고 했던 그의 말대로 다른 직원이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출국하는 공항에서의 보안 검사에서는, 신발까지 벗기면서도 슬리퍼 따위는 절대 준비해주지 않는 무대포 정신이 있었다. (그래, 이래야 좀 아프리카스럽지'란 생각이 들었다면 편견일까.) 입국장과 출국장을 동일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 봤던 면세점이나 매장들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었다(물론 입국할 땐 가게에 안 들어갔지만). 딱히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할 만한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 그나마 들른 곳은 주류점. 나와 워니는 6개 들이 맥주팩을 하나씩 샀고 달빳은 살사동호회 사람들과 나눠먹을 코코넛 술을 챙겼다. 비행기 시간까지 상당히 또 시간이 남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호텔에서서의 신혼부부를 다시 만났다. (사실 안 보기가 더 어렵지.) 이 글에 그들의 멋진 결정과 이야기도 쓰고 싶어서, 간단히 소개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역시나 그들은 흔쾌히 허락해주었다. 멋진 김용선&정희주 부부,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출국장에서 열심히 여행기를 정리하는 나의 모습.

저 작은 수첩에 적지 않았다면 잊어버렸을 많은 추억들이, 수첩 덕에 살아남았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기분이 참 묘했다. 언제나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때 매번 그렇지만, 이번엔 더 감상적이 되었다.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여정이고,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먼 곳이기에 더 그랬을 터다. 조금이라도 더 이 땅덩어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질 때, 비행기는 자신의 길을 향해 날아 올랐다.

내가 지난 자리 뒤로, 아프리카가 남았다.



에필로그 1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비상구 쪽 좌석을 미리 선점하려고 홈페이지에서 노력했으나 실패했었는데, 좀 어이없게도, 막상 돌아가는 비행기의 자리는 텅텅 비어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하여 편하게 앉았고, 달빳과 워니도 원래 자리의 앞인 비상구 옆로 옮겨 앉을 수 있었다. 난 원래 성격이 지정석 외에는 잘 안 옮기는 편이라(그냥 귀찮아서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심한 건지도 모른다) 혼자 앉아 있었다.

사실 기차나 비행기를 탈 때 혼자 타게 되면 옆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설레는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버스는 우등에 1인석이 있으므로 요즘엔 그런 범주에서 빠진다), 정말이지 내 평생 단 한번도 보람을 느낀 대상(?)을 만난 적이 없다. 물론, 그 동안 내 옆자리에 앉으신 분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연히 그런 식으로 눈 맞아 연인으로 발전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날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대는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좋았던 것이라면, 넉넉한 자리와 화장실에 줄 설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앉은 열을 맡은 스튜어드가 정말로 잘생겨서 서비스 받을 때마다 흐뭇했다는 것(솔직히 이건 '그나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다). 아주머니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게 비행기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느껴졌다. 이러니 아저씨들은 비행기만 타도 예쁜 아가씨들이 챙겨주니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항공사들은, 스튜어드 채용을 확대하라~ 확대하라~!)

에필로그 2 - 달빳의 한 페이지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하여 각자의 집까지 최대한 빨리 출발하는 차편을 골라 집으로 향한 후 짐을 제대로 풀지도 못한 채 잠에 빠져 들었다. 역시 기내에서 자면서 왔다고는 해도 잠은 누워서 자야 하는 법.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 두렵기도 하고 꿈속에서 케냐에서의 추억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쉽사리 잠에서 깨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만 지겨운 일상과 함께 그 지겨운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여행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케냐에 다녀온 약 한 달 뒤, 워니가 호주로 출장을 다녀왔다. 워니는 그 곳도 너무 아름다워 언젠가 우리 셋이 함께 차를 렌트해서 여행하고 싶다고 했다.

달빳 : 마흔 살 때, 기념으로 가자!

워니 : 너 땀에 못 갈 거 같아.

달빳 : 왜?

워니 : 네가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가겠냐?

달빳 :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잖아.

(달빳은 케냐 여행 내내 사귀던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했으나, 결국은 헤어졌다.)

워니 : 그래도 네가 제일 먼저 결혼할 거 같다.

달빳 :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다른 데 말기고 무조건 갈게!!!

마흔 살이 되면 현실에 더 얽매이는 우리가 될지, 아니면 더 배짜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러부리와의 다음 여행을 다시 꿈꾸어본다.

Never ending story

J challenge therefore J am.

BC 5세기 중반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술통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지혜를 빌리러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말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디오게네스는 힐끔 알렉산더 대왕을 보더니, 이내 귀찮은 듯 다시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비켜 서 주게, 그대가 태양빛을 가리고 있으니,”

여행을 다녀와서 읽은 어느 책에 들어있는 이야기이다. 나는 ‘현재’를 중요시 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의심스러워(?)보일 정도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며(낮은 연봉이 필수 조건인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며, 월세 살면서 저축도 열심히 안하고, 여유자금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여행을 다닌다),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둔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한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
저 상황의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사람이겠는가?

나도 나의 태양빛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